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APR 1 5 1983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107 1983년 4월 1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April 14,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당분간 실시 보류

메트로 성인잡지판매규제법

성인잡지판매규제법 실시가 당분간 보류된다.

메트로의회는 12일 성인잡지판매규제법 실시를 당분간 보류시켜 보다 효과적인 실시방안을 검토하자는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의 주장을 21대17로 통과시켰다.

약 4주전인 지난 3월15일 의회를 통과한 성인잡지규제법에 따르면 성인잡지를 팔고자 하는 상점주는 연 28달러를 내고 판매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동법은 또한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기위해 모든 성인잡지는 1.5미터 높이 이상의 진열대에 제목이외의 부분을 불투명물체로 가려 진열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잡지 규제대상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 일일이 검열을 해야하고 연$28달러를 내고 허가를 받는등 동법의 시행이 상점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 통과를 강력저지해왔었다.

한인실업인협회는 동법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행규정상 회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직접 메트로의회에서 반대발언을 했었다.

원래 동법의 통과를 강력히 밀고나온 토론토시의원 준·롤랜드여사는 일단 통과된 법이 재검토를 거치도록 보류된데는「강력한 로비활동」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고 12일 말했다.

잡지공급회사인 인터·시티뉴스가 중심이 되어 각 상점주들이 서명한 741장의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날 보류안이 통과된 뒤 이글튼시장은 자신은 동법의 기본정신과 목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잡지의 한계규정 및 판매허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실업인협회의 강공선사무장은 "청원서는 실협이 직접 주선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시티사가 실협을 통해 청원서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간 것으로 보아 많은 교민상점주들이 청원서에 싸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일밤 한·카경협 한국측 의장 구평회씨가 베푼 교민대표 및 양국 대표단 초청 만찬회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 베네토 캐나다측 의장과 구의장.

"데이비드수상 출마하면 조·크락 물리칠수 있다"

지난달 실시된 한 비밀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데이비스수상이 전국보수당 당수후보로 나선다면 조·클락을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펙츠(Canadian Facts)사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는 또한 브라이언·멀로니(Brian Mulroney) 후보보다는 조·클락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데이비스수상이 보수당 당수가 될 경우 피에르·트루도가 이끄는 자유당을 50.3%에서 24.5%의 압도적인 차로 누를 수 있다고 이 여론조사는 밝혔다.

◆레이건머리(?)를 앞세우고-피치버그의 한 노동자가 6일 이곳을 방문한 레이건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레이건의 머리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의 시세〉

금(런던 하오 FIX)	$533.23/oz
은(토론토)	$13.93/oz
캐나다 1달러	US$0.8116
미 화 1달러	CAN$1.2322
원화·캐네디언달러 교환율 (서울 외환은행 전신환 매입/매출)	619.38/622.50

철분사용 혁신적癌수술

고온자석과 낡은 녹음테이프서 채취

(샌디에고=UPI)고온자석과 낡은 녹음테이프에서 채취된 철분을 사용하는 암수술이 이달말께 세계최초로 UCLA메디칼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칼레도-마그네틱이라고 알려진 이 혁신적인 암수술은 연방정부 의약당국의 승인이 나는대로 곧 실시될 것이라고 이 센터의 신경외과 로버트 랜드교수가 밝혔다.

이 수술은 뇌도암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게 실시될 예정이다.

모두 15분정도가 필요한 이 수술은 자장속의 환자에게 뇌도를 통해 철분을 넣은다음 자장을 가열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랜드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이 방법이 부작용이 없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간 4천여명의 여성이 자궁암의 확산으로 사망하고 있다.

구의장, 만찬회 주최

한·카 경협대표단및 교민대표위해

한국·캐나다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의 양국 대표들과 토론토 및 몬트리얼。 교민대표를 위한 만찬회가 12일 저녁 포·시즌즈호텔 웨스트·리전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 의장인 구평회씨(호남정유사장)부처가 베푼 이날 만찬회에는 헤드·테이블인사로 제임즈·도넬리 캐나다 원자력회사사장(Atomic Energy of Canada Ltd.), 이규현 대사부처, 이상훈 토론토총영사부처, 베네토 캐나다측 의장부처, 브루스·호 BC 자원투자공사회장등이 초대되었다.

한·카경협의 발전을 위한 전배를 주도한 이 대사는 연설에서 한·카경제협력회의가 실협10주년파티와 같은 때에 열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그 파티에 참석, 2천5백여 한국교민들이 모인 광경을 보았더라면 퍽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교민들의 힘으로 실협파티와 같은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신장된 것을 상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의 호스트인 구의장은 참석한 교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위해 보답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유머섞인 유창한 영어로 환영사를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구의장의 즉석제의로 만찬회 참석자는 한국민요 이리랑을 소리 높여 부름으로써 파티를 끝냈다.

이날 한국측 대표들은 토론토 근교의 산업시찰 및 각 산업별 분과토의를 가졌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대전을 교육중심지로

전대통령 구상

(대전13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충남도청소재지인 대전시를 교육의 중심지로 개발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서울을 교육중심지로 생각해 서울로만 몰리는 경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룩렉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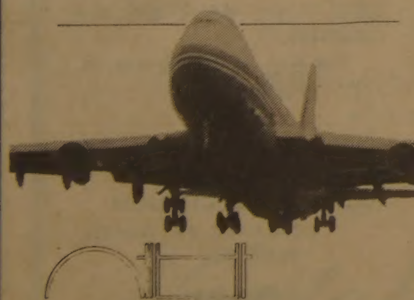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캐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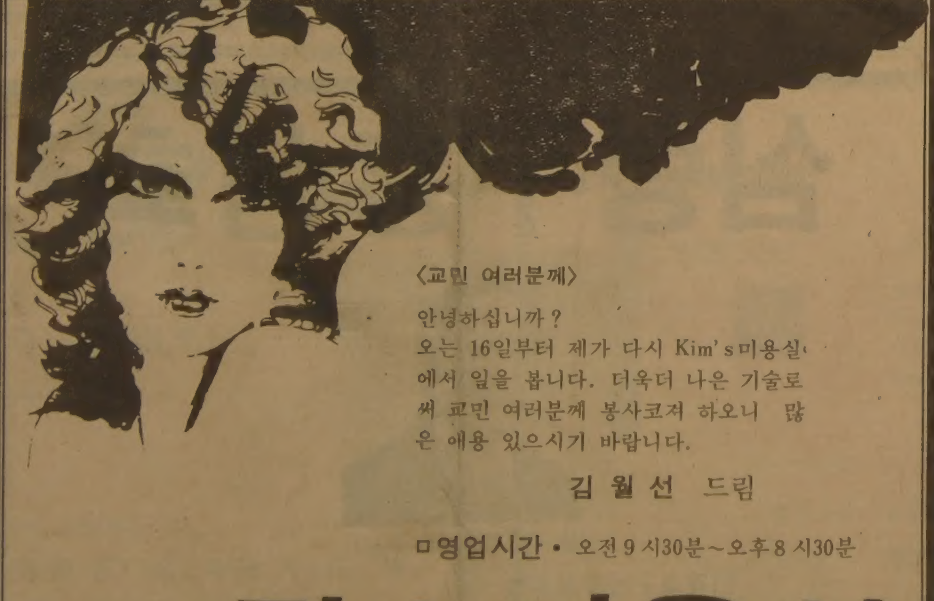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세방여행사
IATA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키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민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667-8129



〈교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오는 16일부터 제가 다시 Kim's미용실에서 일을 봅니다. 더욱더 나은 기술로써 교민 여러분께 봉사코저 하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월선 드림

ㅁ영업시간 • 오전9시30분~오후8시30분

킴스미용실
668 MANNING AVE. (코리아하우스 뒤) 532-7094

〈집매매〉

(1)타운하우스 (영×스틸)
완전히 새로 장식. 지하실 완전 꾸밈.
(2)3베드룸 (베이뷰×존)
지하실 완전꾸밈. 학교, 쇼핑센타, 버스 2분거리.
냉장고, 오븐, 세탁기포함.
(3)4베드룸(베이뷰×Royal orchard)
새카펫, 부엌에 식당달림.
냉장고, 오븐, 세탁기, 디쉬·워셔포함.

※급매이오니 좋은 조건과 가격에 드릴 수 있읍니다.

Please call Mr. RON BATT
☎(B)886-2840
(R)221-5437
RE-MAX CENTRAL REALT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하프·백(Half Back) 제도

잡지에까지 확대실시 계획

온타리오주정부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출판된 책에만 실시해오던 하프·백 프로그램을 잡지에로 확대 실시한다.

하프·백(Half Back)이란 캐나다작가의 책을 살때, 당첨되지않은 윈타리오(Wintario)복권 1장을 50센트로 계산해주는 제도이다. 윈타리오복권은 온타리오주가 발행하는 1달러짜리 복권이다.

온타리오주정부의 출판물진흥위원회 국장인 낸시·플레밍씨는 하프·백제도가 현재까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월31일 정부가 예상한 것은 총100만달러 이상의 당첨되지않은 윈타리오 티켓이 책을 사는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189명의 회원을 가진 캐나다정기간행물 발행인협회는 하프·백제도가 잡지에 까지 확대될 경우 그 반응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민가게에 강도침입

—메트로 경찰 보고—

메트로·토론토의 한 교민가게에 흉기를 든 피한이 침입, 돈을 털어 달아난 강도사건이 11일 밤에 일어났다.

메트로경찰 보고에 따르면 이날 8시55분경 880 엘즈미어·로드(Ellesmere Rd.)에 위치한 맥스·밀크 스토어에 피한이 들어와 주인 김용대(54)씨에게 칼을 내밀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에 응하자, 피한은 돈을 챙겨가지고 글래모간·드라이브(Glamorgan Dr.)쪽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대규모 서적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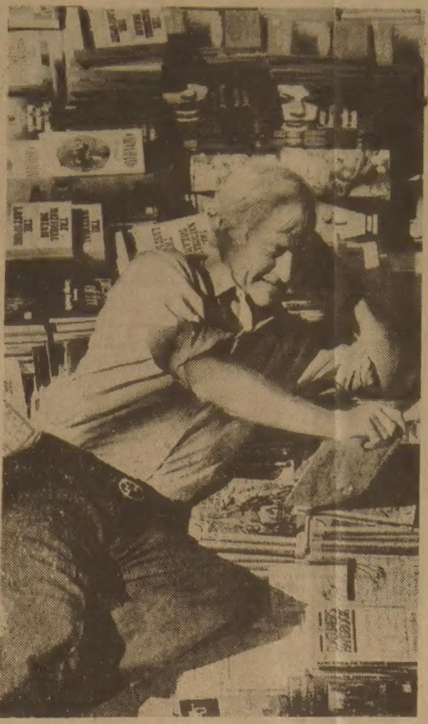
자금난 허덕이는 출판회사

캐나다의 유명출판회사중의 하나인 맥클레란드·앤드·스튜어트(McClelland & Stewart)회사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약50만권의 책을 대폭할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14일(목)부터 16일(일)까지 베이스트릿과 던다스스트릿의 지하철역및 상가(The Atrium)에서 실시된다.

이번 세일에 해당되는 책은 1,200종류이며, 가격은 권당 49센트부터이다.

동 회사 사장 잭·맥클레란드씨는 다급한 현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묘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맥클레란드·앤드·스튜어트 출판회사사장 잭·맥클레란드씨가 대폭 세일에 내놓은 동출판사 발행의 책더미위에 앉아있다.

〈복합문화와 문학〉 심포지엄

15일부터 2일간 토론토대학에서

캐나다 작가들과 교수등 지식인들이 오는 15일부터 2일간 토론토대학에 모여 「복합문화사회에서의 문학」이란 주제하에 토의를 가진다.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후안·칼로스·가르시아씨, 네인·노메조씨등 5명의 토론토대학 교수들과 1명의 리이어슨 칼리지 교수가 추진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시인 얼·버니(Earl Birney), 시인겸 소설가 조이·코가와(Joy Kogawa), 가수이며 시인인 로버트·젠드(Robert Zend), 원주민 작가인 버나·존스톤(Verna Johnston)여사등 45명의 작가들이 초대된다.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은 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에트닉 작가들간의 대화증진, 세계및 캐나다 문학속의 복합문화주의 이해증진및 문학과 복합 문화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관의 발족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일정은 15(금) 하오7시부터 9시반까지 작가들의 작품낭송으로 시작되며, 장소는 토론토대학 Medical Science Building(1 King College Circle #3154), 입장료는 2달러이다.

16일(토)에는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15 King College Circle #152, 244에서 망명을 주제로 하오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역시 같은 장소에서 1)문학과 인종문제, 2)문학과 인권에 관한 워크숍이 각각 개최된다.

제5계절 지렛대의 힘(Leverage)

강 상 욱(메릴린치증권회사 근무)

◆강상욱씨

부동산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샀다고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개발계획 때문에 사놓은 부동산이 짧은 기간에 몇배로 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행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 일반적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 값은 인플레이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부동산의 구입이 어느정도 인플레이숀싸이클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는 부동산 투자에는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10만불을 가진 사람이 10만불의 부동산을 산 경우와, 돈을 빌려서라도 70만불의 부동산을 산 경우 인플레이숀으로 일반 부동산 값이 두배로 상승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10만불의 이익밖에 볼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70만불의 이득을 보게 된다. 물론 빌린 돈의 이자나 기타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용어로 전자의 경우는 레버리지(Leverage)가 전혀없고, 후자의 경우는 레버리지(Leverage)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가 작은 힘으로 큰것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10만불로 70만불의 부동산을 움직였으니 그만큼 레버리지(Leverage)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것을 보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인플레이숀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를 잘 맞추어 지렛대의 원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데에 그 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가게를 하여 3만불을 저축한 사람이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 좋은 투자대상이 나올때까지 구좌에 돈을 넣어두고 우선 이자를 받자고 했더니, 이자가 발생하는 구좌라면 돈을 넣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이 세무성으로 보고되어 자금출처를 추궁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있는자의 고민"이란것이 바고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일이었다. 3만불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될런지는 세무성관리와 담판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3만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금출처때문에 몇년씩이고 포기하는것보다는, 일단 이자를 받아 이 이자로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우기 지렛대의 원리를 잘 이용하여 3만불로 10만불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 부동산이 20만불로 올라간다면 자금출처에 해당하는 최초투자액 3만불에 대한 세금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경기싸이클에서 일단 인플레이숀이 심해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면, 우리는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렛대의 힘을 잘 이용할줄 아는 지혜를 한번 발휘해 봄이 어떨까 생각된다.

교 민 동 정

◆홍승해＝토론토에 서 상점을 경영하는 홍씨는 12일밤 한·카경제협력위원회 회장 구평회씨와 장시간 전화를 통해 33년전 학창시절을 회고했다. 홍씨는 해방 2년후인 47년 서울대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 구회장(호남정유사장)과 함께 클라스·메이트로 3년간 지냈다. 홍씨와 구회장은 6.25가 나던 50년6월을 전후해서 헤어진후 이날 이역땅에서 반갑게 통화한 것이다.

「온」주내 각대학들 등록금 인상 주저

온타리오주내의 여러 대학당국은 그들이 금년 가을학기에 적용하려는 등록금인상안이 성과가 없을 것을 시인하고 주저하고 있음이 12일 밝혀졌다.

대학당국자들은 대부분의 외국학생들이 40% 이상되는 등록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결국은 귀국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82년 2월 온주정부는 외국학생에 대한 2단계 등록금인상조치를 발표하고 1차로 작년 9월학기에 적용했다.

이번에 2단계 인상조치가 되면 외국학생들은 기존교육비보다 약 3분의 2가 인상된다.

캐나다 학생연맹 온타리오지부는 작년도 외국학생으로부터 인상해받은 돈에 대해 밝히라고 반박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 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荒野의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211>

金聖鍾作

헤로인 ⑥

캡의 사나이가 日人과 女子를 미행…

6호실에서 나는 소리임을 확인한 그는 다시 움직였다.

소년의 말대로 5호실은 비어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가만히 문을 닫았다. 몸뚱이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가 쿵쿵하고 들려왔다. 신음소리가 차츰 작아지더니 이윽고 잠잠해졌다.

그는 벽을 만져보았다. 얇은 베니어 판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다 들렸다. 귀를 기울였지만 옆방에서는 더이상 아무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가다리다가 도로 밖으로 나왔다.

소년은 정확히 6시에 그의 방문을 노크했다.

『그 손님들이 방금 나갔읍니다.』

『고맙다.』

그는 급히 여관을 뛰쳐나갔다. 그들의 모습이 골목 밖으로 막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은 역쪽으로 걸어갔다.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꽤 나와있었다.

그는 다른 문을 통해 대합실로 들어갔다.

그 여자가 전라선 매표구 앞에서 표를 사는동안 일본인은 가방을 끼고 앉아 있었다.

조금 후 그들은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캡의 사나이도 얼른 표를 한장 샀다.

그는 시야에서 그들을 놓치지않고 따라갔다.

플랫폼을 따라걷던 그들은 이윽고 차간으로 올라섰다.

그는 곁눈질로 차창속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걸어갔다. 얼마쯤 걷다가 그는 되돌아왔다.

그들이 차창가에 막 자리잡고앉는것이 보였다. 따로 칸막이가 되어있는 독실이었다.

그는 열차로 올라갔다. 그의 자리는 앞쪽의 일반석이었다. 그는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朴男 그림

6시30분에 열차는 출발했다.

30분쯤 지나자 검표가 시작되었다.

검표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독실칸쪽으로 걸어갔다.

독실칸은 다섯 칸이나 지나서야 있었다.

그는 화장실 가까운 복도에 섰다. 누가 보기에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소변을 본 다음 10분쯤 서있다가 나왔다. 밖에서 중년 사내가 눈쌀을 찌푸리며 서있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는 정중히 사과했다.

사내는 대꾸하지 않고 안으로들어갔다.

그는 문을 열고 승강구쪽으로 이동했다. 문은 투명 유리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화장실이 잘 보였다.

승강구 쪽은 추웠다.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자가 나왔다. 그가 사라지자 캡의 사나이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화장실 앞에 섰다. 담배를 피워물고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가 복도로 나왔다.

그가 미행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작업장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한꺼번에 9사람몫 거뜬히

20萬弗「로보트」

核공장·戰鬪지역등 地形관계 없이 6개의 다리가 천8백 파운드 적재

인간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짐을 옮기거나 물건을 차에 실을수 있고 또 어떠한 지형위에서도 작동할수 있는 최신형 로보트가 발명, 12일 공개되었다.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 메이타테이프를 제공했던 고도정밀전자회사인 오데틱 Inc가 개발한 이 로보트는 「오덱스 I」이라고 명명되었는데 보통 건장한 노동자9명의 몫을 거뜬히 해낼수 있다는것.

특히 「오덱스I」은 핵공장등 인간에게는 작업환경이 맞지않는 공장이나 더우기 전투지역에서까지 갖가지 작업을 해낼수 있어 이미 미육군에서는 「효율적인 병사」라며 환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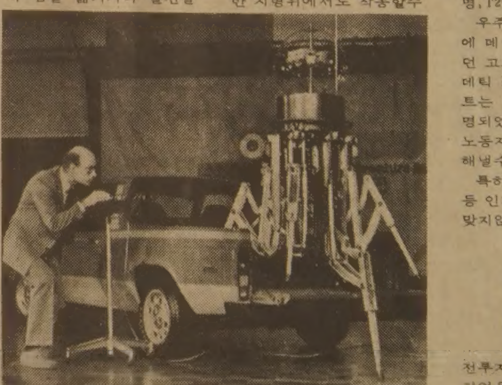
6개의 다리에 둥그런유리머리로 만들어져 마치 문어같이 보이는「오덱스I」는 비록 무게가 3백75파운드밖에 안나가지만 다리한개가 작업중에 최소한 4배50파운드의 무게를 들어올리거나 옮길수 있다. 더우기 정지상태에서는 6백파운드까지 취급할수 있으며 동시에 1천8백파운드까지 적재할수 있다.

또한 6개의 다리가 접혀지거나 한곳으로 모을수 있어 자체적으로 전체의 길이나 크기를 각 작업장에 알맞게 변형시킬수 있는것도 특징.

「오덱스I」은 모두7개의 정밀컴퓨터를 가지고있는데 6개는 하나씩 각 다리에 연결되어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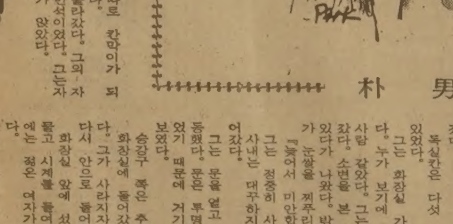
마치 비디오게임의 조정관처럼 생긴 「콘트롤러」로 손쉽게 작동할수 있으며 「리모트콘트롤」도 가능하다.

아직 시판단계는 아니나 회사측은 현재 신청을 받고있으며 가격은 한대당 20만달러정도.



▲마치 문어같이 생긴 「오덱스I」은 노동자9명의 몫을 거뜬히 해낼수있는 최신형로보트이다. 〈LA－AP〉

세계 최고의
부리타니카 백과사전



총 30권

● 국민학생용 15권
● 유치원용 12권
● ATLAS지도책 1권
● BIBLE 성경책 3권
● WEBSTER-DICTIONARY 3권

다른 책을 구입하시전에 부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구경하세요

'83년도판 가격인상이 있을 예정이오니 4월18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 (416)469-1350, 463-7423 이 송 원

심령부흥성회

(서울 시온장로교회 목사)

□강사 · 김형태목사
□시일 · 4월21일(목)부터 24일(주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7시30분(목·금·토·주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장소 : 한인오순절장로교회당
754 INDIAN RD. TOR. ONT.
□연락전화 · 245－4770, 651－4621, 762－1495

〈친목의 밤〉

희망의 새 봄이 왔읍니다. 단결되고 화합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팀웍의 밤을 마련했읍니다.

부부동반 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4월23일(토) 오후8시
장소 : CYRIL CHRUCH
204 PARK ST. NORTH
HAMILTON ONT

▣특별출연 :
＊유명4인조 LIVE BAND

1983년 4월

해밀톤한인회
회장 장 홍 규

〈연재소설〉 ①

혼돈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나는 이제 떠난다. 바다같이 넓고 아름다운 호수와 아직도 원시림이 남아있는 자유와 풍요의 나라로 떠난다"

나는 마지막으로 비자가 박힌 여권을 대사관에서 받아들며 속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실감이 나지 않은 현실을 실감하기 위해 여권을 어루만지며, 또 펴보고 또 펴보았다. 거기에는 살짝 웃는 내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 주소, 키, 눈을 빛깔등이 적혀있고, 맨 뒷면에는 비자가 박혀 있었다.

나는 여권을 손에 꼭 쥐고 밖으로 나왔다. 발걸음이 허공위에 뜬 것 같고, 눈시울이 뜨거워 왔다.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는 세월을 견디어 왔더냐? 얼마나 벼르고 별렀던 순간이더냐? 나는 이제 떠난다. 태평양을 건너 멀고 먼 나라로 떠난다"

가슴속으로는 독백을 계속하며 걸었다.

대사관을 나왔다는 사실 밖에는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도 꼭 약속시간에 약소한 장소까지 가야하는 사람마냥 바삐 걷고 있었다. 탁한 서울시내의 공기도 붐비는 인파도 자동차의 소음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걷고 또 걸었다.

슬픈 음악에도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고, 육교위의 걸인에게도 선심을 쓰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어느새 남산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고 있었다. 나는 여기를 어디로 어떻게 왜 왔는지를 몰랐다. 아주 오랫동안 멀리 걸어서 여기에 왔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에 뻐근한 통증이 오고, 심한 공복감을 느꼈다. 나는 그때서야 아침 점심을 내리 굶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한 시장기를 느끼면서도 아무거나 먹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만은 최고급 식당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최고급 음식을 먹고 싶었다. 남산위에 등대처럼 솟아있는 동양탑의 스카이라운지를 떠올렸다.

"서울시내를 느긋이 굽어보며 값비싼 서양요리를 오른손의 칼로 썰어 왼손의 포크로 찍어 먹으며, 새 나라에서의 삶을 설계하리라. 어느날 양식집에서 본 노랑머리의 아가씨처럼 소리도 없이 오물오물 씹고 맛을 음미하며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리라"

나는 갑자기 힘이 솟았다. 속력을 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현기증이 일어나 어찔어찔해도 껑충껑충 뛰며 계단을 올랐다. 라운지로 오르는 승강기 앞에서 레벨버튼을 눌러놓고 다시 한번 핸드백을 열어 여권을 확인했다. 새 여권은 기름을 발라 놓은 것 같이 반지르르 윤기를 내고 있었다.

괜히 흐뭇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한 것 같은 충족감이 가슴에 차올랐다.

덜커덩거리며 승강기의 문이 열렸다. 라운지의 입구는 승강기의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승강기에서 걸어나와 곧바로 식당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었다.

식사시간이 아닌 탓인지 몇몇 손님이 맥주병을 놓고 앉아 있을뿐, 식당안은 한가한 편이었다.

나는 한동안 서서 자리를 찾다 시내쪽의 창가로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가 갖다 놓은 메뉴를 펴보고, 티본 스테이크와 토스트, 사라다, 와인을 주문하고,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도시의 모형을 보는 것 같이 오밀조밀한 건물 사이를 자동차의 행렬이 바퀴떼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계속)

식자안내
컴퓨터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빠른 싸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콘텍트 렌즈

4가지 種類의 사용要領

콘텍트렌즈가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 그동안 하드렌즈에서 소프트렌즈가 발명되고 요즈음에는 장기간 눈에 끼고 다닐수 있는 신종렌즈도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시판되고 있는 콘텍트렌즈의 타입은 4가지. 보통 하드렌즈,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하드렌즈(Gas-permeable hard lenses), 매일 꼈다 빼는 소프트렌즈(Daily-wear soft lenses)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렌즈(Extended-wear soft lenses)가 그것이다.

▲하드렌즈:가장 최초로 발명된 콘텍트렌즈로 값이 싼 잇점이 있으나 부작용이 많이 나고 눈에 불편함을 많이 준다. 그래서 안과의사들은 하드렌즈의 사용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 값은 1백50달러에서 2백50달러. 다시 주문하려면 한쪽에 20불.

▲「개스·퍼미어블·하드·렌즈」:흔히 「세미·소프트(Semi-soft)」라고 광고하지만 딱딱한 정도는 하드렌즈와 같다. 이 렌즈는 하루 18시간까지 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렌즈를 눈에 길들이는데 약2주정도의 장기간이 걸리며 쉽게 떨어져 분실하기 쉽다는 점이다. 가격은 2백80달러에서 3백50달러. 렌즈만 바꾸는 값은 한쪽에 60달러.

▲소프트렌즈:이 렌즈가 발명된 것은 70년대 초반. 하드렌즈의 딱딱함을 없애기위해 40%의 물을 렌즈가 포함하도록 만들었다. 부드러우므로 눈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눈에 쉽게 적응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은 하드플래스틱렌즈만큼 선명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고 매일밤 빼서 소독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가격은 2백40달러에서 3백50달러. 한쪽렌즈만 바꾸는 값은 30달러에서 50달러.

소프트렌즈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렌즈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잘 흡수하여 매일 끓이거나 소독액에 담가두어야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효소액(enzyme solution)속에 하루밤 담가두어 렌즈가 노랗게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장기착용 소프트렌즈:얇고 더 부드럽게 만든 최신 소프트렌즈. 2주동안은 빼지 않고 그대로 끼고 잘 수가 있다. 보통 소프트렌즈와 다른 점은 71%가 물이라 더욱 더 부드럽고 산소투과량이 더욱 많아 눈이 편안하다는 것. 그러나 이렌즈의 과대광고에 주의하도록 많은 안과의사들은 경고한다. 2주동안 렌즈를 안빼고 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착용전과 후에 꼭 정밀눈검사를 받아야한다.

콘텍트렌즈를 처음 끼는 사람은 보통 소프트를 끼는 것이 좋고 장기소프트렌즈를 낄 경우는 우선 하루동안 끼고 빼는 단계에서부터 점차 하룻밤, 일주일로 기간을 늘여간다. 렌즈값외에 눈검사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값이 비싼편. 보통 3백20달러에서 7백달러. 그리고 일년에 한번은 렌즈를 바꿔야하며 값은 한쪽 렌즈당 80달러에서 1백달러.

단점은 소독을 효소액이나 가열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화학소독액(Chemical disinfectants)을 쓰게되어있다. 소독약으로 새로운 과산화수소액이 곧 시판될 예정이다. 렌즈가 너무 약하고 섬세해서 소독하는데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의 콘텍트렌즈:콘텍트렌즈는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강제로 끼게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렌즈관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안과의사들이 권고하는 나이는 10세. 또한 12세미만의 근시어린이에게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하드렌즈를 끼게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시력퇴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11회 바이커톤(Bike-A-Thon)

온타리오주의 신체장애자 돕기위한 행사

더·버라이어티(The Variety)클럽이 주관하는 제11회 연례 「바이커톤(Bike-A-Thon : 자전거를 통한 모금)」이 오는 24일(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온타리오주의 신체장애자를 돕기위해 열리는 이 모임은 매년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약18,000여명이 참가하여 $50만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행사의 대회장인 부르스·레이몬드씨는 금년 바이커톤에는 약 2만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대상은 제한없으나 예년에 보면 대부분의 연령은 12세부터 14세까지였다.

전장 32Km에 이르는 자전거 코스를 달리는 바이커톤의 체크포인트는 시청앞 나단필립스광장(Nathan Philips Square)과 스카보로의 버라이어티·빌리지(Variety Villiage)등 6개코스에 설치된다.

각코스에 1번부터 1,000번째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후리즈비(Frisbee)를 선사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경품을 추첨하는 추첨권이 주어지며 코닥카메라회사에서도 별도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 클럽은 $350만을 모금하여 각종 자선기관에 기부했는데 금년도에도 대개 어린이 신체장애자를 돕고 있는 Variety Villiage(Danforth Ave. 소재의 신체장애아동센터), Paul Nathanson Center, Electro-Limb Center(소아마비를 위한 연구기관), 신체장애문제전문 아동병원등지에 보내게 된다.

불로아에 있는 자전거점포의 주인인 앤드류·켄트씨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전 자전거에 대한 예비점검으로 오일주입, 타이어 및 핸들의 균형조정, 브레이크 및 기아조정등에 신경을 쓸것을 강조했다.

또한 체육전문가인 도레이드씨는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신체조절(Warm-up)을 하고 특히 발목과 손목등의 근육을 마사지할것과 매일 10분~15분씩 자전거를 타는 연습을 해둘것을 당부했다.

온타리오 사이클협회 간사인 마이크·필립씨는 절대로 과속과 초반에 달릴 필요가 없으며 낮은 기아에 맞추고 즐겁게 재미로 탈것과 신발은 간편한 조깅·슈스면 좋으며 옷은 너무 끼지 않고 품이 넓은 스웨터나 잠바등을 입으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는 규칙을 지키고 특히 핸드·시그날(왼쪽, 오른쪽, 스톱사인을 배워두어야 한다)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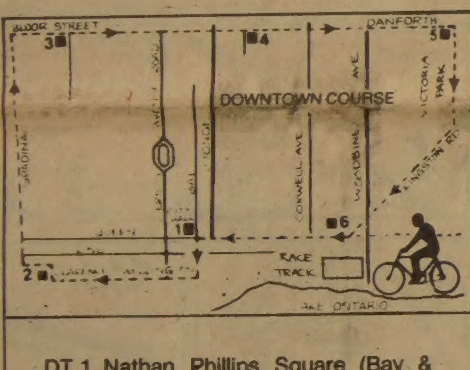
이번행사를 지원하는 단체는 메트로 경찰, 캐나다상업은행, 맥도날레스토랑, 캐네디안타이어, 심슨백화점, 주요수퍼마켓, 도서관, 샘레코드회사등이다.

모든 참가자는 이날 오전8시와 오후1시사이 어느시간이든지 각코스 출발점에서 등록하고 떠나며 3시30분전에 체크포인트에 도착해야 한다.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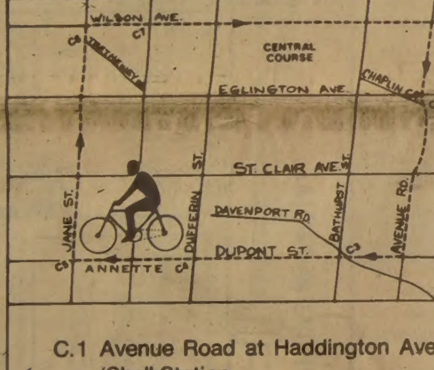
이번에 달리는 코스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DT] DOWNTOWN COURSE 3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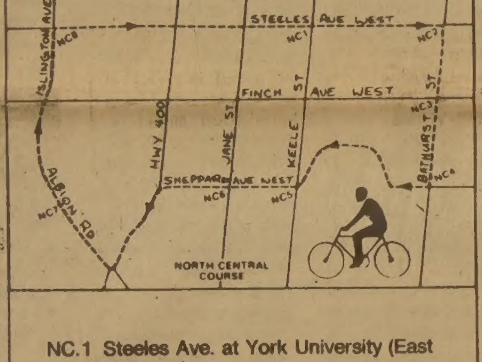
- DT.1 Nathan Phillips Square (Bay & Queen St.) (arrows will denote points of entry and exit)
- DT.2 Clarence Square Park (Spadina & Wellington)
- DT.3 Shell Service Station (Bloor & St. George)
- DT.4 Prince Edward Viaduct Parkette (East of Parliament Street)
- DT.5 Shoppers World Mall (Danforth & Victoria Park)
- DT.6 LCBO (Kingston Rd. & Queen St.)

[C] CENTRAL COURSE 3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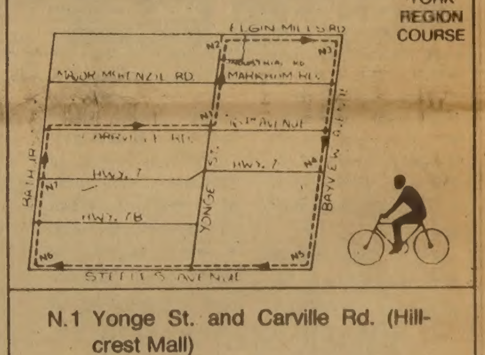
- C.1 Avenue Road at Haddington Ave. (Shell Station
- C.2 Avenue Rd. and Chaplin Crescent
- C.3 Dupont and Huron Sts. (Loblaws Store)
- C.4 Dupont St. and Dufferin St. (Bear Alignment Centre)
- C.5 Jane St. and hanley St. (B.P. Station) South East corner
- C.6 Jane St. and Trethewey Dr. (B.P. Station)
- C.7 Keele St. and Wilson Ave. (South East Corner)

[NC] NORTH CENTRAL COURSE 3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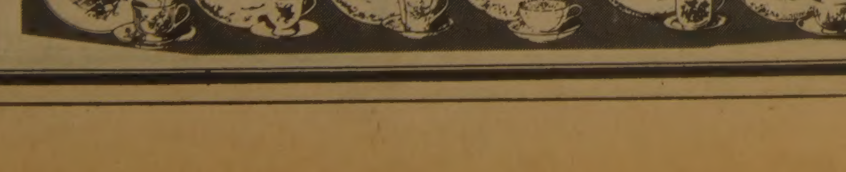
- NC.1 Steeles Ave. at York University (East entrance)
- NC.2 Steeles Ave. just west of Bathurst (Concourse Medical-Dental Centre)
- NC.3 Bathurst St. at Finch Ave.
- NC.4 Bathurst St. at Sheppard Ave. — Shopping Mall (North West corner)
- NC.5 Sheppard Ave. and Keele St. (Sheppard Ave. West Public School)
- NC.6 Sheppard Ave. just west of Arrow Rd.
- NC.6 Albion Rd. at 900 Albion Centre — Parking Lot
- NC.8 Islington Ave. at Slatterly Rd. (Just south of Steeles Ave.)

[N] YORK REGION COURSE 3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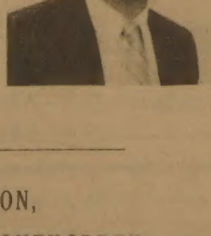


- N.1 Yonge St. and Carville Rd. (Hillcrest Mall)
- N.2 Yonge St. and Industrial (Lot just south of McDonald's)
- N.3 Elgin Mills Rd. and Bayview (South West corner)
- N.4 Bayview and Highway 7 (North West corner)
- N.5 Bayview and Steeles (North West corner)
- N.6 Steeles and Bathurst (Just east of Gulf Station)
- N.7 Bathurst and Highway 7 (South East corner)

The Sol
··· FINE GIFT STORE ··
세일기간 : 4월15(금)~30일(토)
품목 · ■각종 Noritake Dinner Ware
■Crystal 제품
■China ware
■Silver ware
■각종 대나무 가구및 일반제품
Noritake
1032 ST. CLAIR AVE. W.
(쎄인·클레어×Oakwood 서쪽)
☎656-4315 MRS. 최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tor
Real Estate
이 소 영
1012 Upper James St.
Hamilton, Ont. L9C 3A8
Office (416) 388-4690
Res. (416) 522-3833



-봉사지역- HAMILTON, BURLINGTON,
DUNDAS, NIAGARA, STONEYCREEK
주택/건물/Plaza/가게/사업체
이번에 제가 HAMILTON에 자리잡고 있는 CANADA PERMANENT REALESTATE를 대표하게 되었읍니다. 폭넓은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힘써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이 소 영 드림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벡커 경쟁문제 심각화

해결책 위한 좌담회

지난 수개월간 벡커회사의 담배가격도전을 관망해오던 협회에서는 좀처럼 원상복귀할 기미가 없어, 관제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불경기에 전체매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담배에 대하여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낮추어 도전해옴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20여개의 회원 상점에게는 기약도 없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번 경쟁의 상대가 자본이 든든한 굴지의 체인 회사이고, 조용히 장사하고 있는 개인가게에 대하여 저쪽에서 먼저 도전해온 사실임에 협회로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4월11일 오후 4시30분에, 실협사무실에서는 이 가격경쟁에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 12명(임방식, 이정구, 김병환, 박건우, 김창호, 정효생, 김봉우, 박기봉, 윤호석, 이영선, 정형출, 이영만)과 집행부측의 차선결회장, 조기연부회장 그리고 이사회측의 이춘수부이사장과 이진효이사가 회동하여 각 회원의 현황을 청취한 다음 대책을 의논하였다.

관계회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1)벡커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1,47(L)과 $1,18(S)이고, 2)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아이며, 3)벡커관계직원들이 가격문제로 접촉해온 일이 있고, 4)4월11일 현재 인상된 가격보다 비율이 낮은 $1,49과 $1,19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

벡커와 벽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K회원은 "버라이어티 가게매상의 40%가 담배인데 이윤없이 팔아야 되니 타격이 막심하다"고 개탄하고, L회원 부인은 "벡커측 직원 말이 3~4년 계속될지도 모르니 가게를 벡커회사에다 팔라"고 하는가 하면, I회원은 벡커의 수퍼바이저가 찾아와서 "벡커에 두가지 가격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고 하여 쫓아내 버린 일이 있다고 한다.

Y회원은 벡커직원이 찾아와서 "담배값이 벡커보다 2센트가 싸다"고 항의하기에 "씨거나 연연초는 벡커가 더 싸다"고 하니까 같이 받지 않으면 싸인을 부치겠고, T.V, 레디오를 통한 광고를 하는 동시에 그로서리 일절을 10% 낮추겠다고 호통을 치고는 싸인을 부쳤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각회원의 현황을 청취한후, 협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도울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는 차회장의 요청에 대하여 대부분 참석자의 의견이 벡커회사측의 이번 처사는 인근에 있는 개인가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므로 회사간부와의 접촉을 통해 해결책 모색보다는 "실협"이라는 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대결해 보는 길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협회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파우어가 커짐으로써 조직의 양적인 확대가 현저해졌지만, 그보다도 이와같은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력해주기를 원하였다.

제1차적인 구체적 대응책으로서 협회에서는 현재 벡커에서 부치고 있는것과 동일한 가격인 $1,49(L)와, $1,19(S)의 통일된 싸인을 제작하여 피해 회원상점의 윈도우에 부치고, 월말경에 세금으로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벡커의 가격변경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벡커본사를 방문하고, 이의 원상 복구를 시도해 보기로 하되, 여의치 않고 계속 판매가격이 원가이하로 들어가는 경우 여타 회원들로 부터의 모금을 통하여 동료 회원의 손해를 메꾸어 주도록 힘쓰기로 하였다.

금번 피해와는 관계없이 동석했던 L이사는 "원가미달로 일부회원이 결손을 보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모금을 요청해 온다면, 이사를 떠난 한 동료회원의 자격으로 몇백불이라도 필요한 모금에 쾌히 응하겠다"고 하여 피해회원들에게 용기를 도꾸어 주면서, "1,000명의 회원이 20여개 회원의 출혈을 보호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금번 가격경쟁이 있기 전에 작년도에도 맥스의 담배경쟁, 벡커의 2% 밀크 경쟁등 싸움이 있었음에 앞으로도 예상되는 체인회사의 도전에 대하여 연약한 개개 상점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결로서만 가능함으로 동료회원의 피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망되고, 협회에서는 에사한 경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였다.

YORK 아이스크림의 개정 리베이트

York아이스크림에서는 1월1일부로 아래와 같이 리베이트의 %를 개정하였으므로 회원의 착오없기 바란다.

◆회사소유 장비	
년$3,000—$3,999	15%
$4,000—$4,999	16%
$5,000—$5,999	18%
$6,000—$6,999	19%
$7,000—$7,999	20%
$8,000—$8,999	21%
$9,000이상	23%

◆자기소유장비	
년$2,000—$2,999	4%
$3,000—$4,999	18%
$5,000—$5,999	20%
$6,000—$7,499	21%
$7,500—$8,999	23%
$9,000이상	25%

클럽·커피와 협약체결

도나쓰업 회원에게 개가

실협의 힘을 배경으로 한 유리한 협약이 도나쓰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공동행위로서 성취되어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위주의 협회라는 일부의 비난을 뒤엎고 드디어 그 첫 실현을 보게 되었다.

강준남 도나스분과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협회 회장단의 적극지원으로 오랜 진통끝에 체결된 도나스관계 재료중 동업회원들의 최대관심사였던 커피 빈이 파운드당 $3,00에서 15센트의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서 $2,85에 최종 합의를 보는데 성공하였다.

커피의 생명인 품질은 Donut Castle과 같은 품질이고, 기타 그라운드 커피로 협정 가격에서 파운드당 15센트의 리베이트를 받게 되어 있다.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Coffee(Invoice Price)	per lb.
Whole Bean—5lb bag	$3.00
Ground—Portion Pack	$3.15
Ground—Pounds	$3.08
Tea	
Rosebud—4×250×1 cup bag	$10.55 per cs.
Rosebud—4×250×2 cup bag	$16.50 per cs.
Hot Chocolate	
Club—powder—2lb bags	$28.00 per cs.
Club—Liquid—100 oz thins	$44.00 per cs.
Drink Crystals	
All Flavours	$17.40 per cs.

◆배달—최하 20lbs(1 c/s)
◆장비—회사에서 제공 차용장비 무료 대체 수리비(부속·노력)무료써비스
◆지불—익월 15일
◆가격변경—30일전에 서면통지

Club Coffee회사와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한 강준남위원장은, "이 기회에 카페테리아와 Fast Food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실협에 가입하시고, 또한 이번 협약에 참가하여 주기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한편 차선결회장은 "강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치하하고, 무엇보다도 실협의 문호를 개방한후 특수업종의 분야에서 처음으로 협약해결에 성공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이 협회산하에 참여하여 한가지씩 한가지씩 유리한 딜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기를 회망한다'고 말하였다.

실협 단체치아보험 성공

3월말현재 500명 돌파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사(Company)가 아니고, 개인상점의 집합체인 협회(Association)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해 본 단체치아보험이 계약조건이었던 500명을 돌파함으로서 드디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의 집행부가 많은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작년초부터 각 방면으로 이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상을 전개한지 만1년만에 Crown Life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이 실현의 관건이었던 500명 가입을 달성함으로써 많은 회원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족당 월 $34.50(사무비 포함)으로 25세이하의 학생을 포함한 직계가족이 개인당 년$1,500까지 100% 카바되는 이 단체치아보험은 실업인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기능을 십분 이용한 하나의 성공적인 섬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런던」,「해밀톤」,「오샤와」,「배리」등 지방의 실협이 온타리오실협의 지구협회로 가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으로 단체치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된 500명이 달성되므로써 보험회사에서는 치료에 필요한「카드」를 곧 가입자에게 우송한다고 하며, 앞으로는 이 카드의 제시로서 시내의 어느 치과의사에게나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

2월1일 이후에 현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청구를 하면 환불을 해준다.

한편 Crown Life에서는 당초에 3월말로 마감했던 실협회원의 가입 신청을 4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여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고 하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단체치아보험가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함으로서 착오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1)K.B.A 회원으로서 가입희망자는 4월30일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밟고 2월1일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서 개인당 년 $1,500까지 치료비가 소급 카바된다.

2)4월30일이 지나면 당일 이전에 실협에 가입한 회원은 단체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3)4월30일이후에 실협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가입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60일이 지난후에는 치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4)4월30일이후의 신규실협회원은 당해년도의 최고 카바금액이 $1,500이 아니고, $1,500 곱하기 12분의 잔여월수가 카바금액이 된다.

보험가입신청서는 실협사무실(533—7923)과, 보험회사에 상비되어 있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Craig Heads(221—2654)에게 연락하면 된다.

2월1일이후 현금을 지불하고 치료받은 금액의 환불청구는 보험회사 또는 협회로 영수증을 보내면 처리된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 (B)
226-0375 (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K.B.A.
단체치아보험
월 $34.50면 온 가족이 마음 놓고 치아의 치료를 받을 수있는 "실협단체치아보험"에 가입하세요.
□자 격—K. B. A. 회원과 그 종업원
□보험료—가족 $34.50 독신 $12.50
□한 계—1인당 년 $1.500 까지 전액 카바
□기 한—1983년 4월30일까지
□문 의—협회사무실 (☎ : 533—7923) Craig Heads (221—2654)
CROWN LIFE INSURANCE COMPANY

실협회원여러분에게
1906년에 설립된 당회사는 우수한 품질과 친절한 써비스를 자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방대한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인실업인협회"의 커피공급회사로서 사업인연을 맺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협과 협약하여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겠사오니 언제든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읍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Club Coffee COMPANIES Since 1906
Joseph Ciccoritti
Sales Representative
Club Coffee Companies
129 Railside Road,
Don Mills, Ontario M3A 1B8
Telephone (416) 447-4981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United Games Ltd. 백운산 이희식
Super Convenience 이기성
King Cowan Variety 서명식
Winston Churchill Convenience 박대현
Sgro Variety & Gift 정대영
Milk Mart 백일욱
MI's Variety 윤응식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日曜초점 美國務省 한국戰관련 極秘文書 30年지나 公開

1·4후퇴의 衝擊

1951년 韓国 〈1〉

동란이 발발한지 단 6개월사이에 전선은 한반도의 南과 北을 번갈아 출렁거렸다.

50년8월 낙동강을 마지노線으로 일진일퇴하던 유엔군은 맥아더가 지휘한 仁川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그해 9월28일 수도서울을 재탈환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한국전 수행을 둘러싼논란은 주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李博士지도력 의심

그러나 곧이어 38선돌파는 참전유엔국간에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선을 38선으로 본 대부분의참전국들과 이기회에통일을 성취해보겠다는 李承晩대통령, 공산침략을 압록강을 경계로 막아야된다는 맥아더와의 사이에 벌어진논란이었다.

그뒤에 진격은 北으로 계속되었으나 중공군의 대거참전으로 전선은 혼미속에 빠져들었다. 중공이 보낸 신호를 잘못읽었고 또 仁川상륙전이후 승리감에 도취된 맥아더의 페이스에 지원부대와의 체계적연결도없이 무모하게 진격하다가 중공군의 내습을 받은 아군전선은 위험한 후퇴작전을 거듭했다.

서울은 51년1월4일 다시 공산군 수중에 떨어졌다.

이보다 나흘앞서 무초주한미국대사는 국무장관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밀물처럼 내려가는 피난민들이 적잖이 작전에 지장을 주고있음을 걱정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잃을것이없어 미련없이 북한땅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나 서울일원의 주민들이나 다같이 중공군의 내습을두려워하는 유다른심리가 작용하고있다고 보고했다.

『역사적으로 특히 李朝시대에 한국과 중국사이는 좋았으나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개인적으로 경멸하는 경향이있었다. 그이유는 한국인들은 주로화교를 한국에서 살아온 가난한 중국인들만을 대해왔기때문이다. 또 중공군은 총대신 칼로 즐겨 사람을 죽인다거나 노략질 살인들을 거침없이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다. 중국대륙의 國共戰에서 국부군이 중공군에 형편없이 패주했던 이야기들 역시 과장되어 일반에 널리 퍼졌다. 한국인들에겐 막연하게 낯선 외국인 침입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하지만 지금당장 급한문제는 軍民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다』

張勉大使를 歸國시켜라

무초大使 急電 "한국인 安心시키고 후계자로"

英首相 長文의電文

이렇게 다급하게 打電하고 서울을 떠난 무초大使는 釜山에 도착하자마자 1월9일 다시 국무장관앞으로 긴급수습방안을 건의했다.

무초大使는 당시 한국軍民의 사기저하가 중공군개입도문제지만 미국을주축으로한 유엔군이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두가지 두려움때문에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李承晩박사가 난국을 맞아 과거와같은 지도력을 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李대통령이 張勉주미대사를 돌아오라고 두번씩이나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어제 말하더라』면서 자기의 견으로는 張勉박사가 전시 내각수반이 되면 큰도움이 될것이다. 다른 지도자들에겐 희망을 걸수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틀후 이번에는 러스크 極東담당 차관보한테 별도 전문을 보내어 張勉의 귀국을 더욱 강력하게 종용했다.

그는 張勉이 그시기에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것이 더 실질적 가치를 발휘할것이라고 믿는다고말하고 張勉이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존경을 받고있다고 덧붙였다.

무초대사는 張勉이 귀국해서 李대통령에 자문을하고 국회와의관계도 원활히 하며 전시내각을 지휘케 하면 방향감각도 되찾고 국민을 단합시키는 힘을 얻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목에서 프린스터니언(프린스턴大출신 李박사를 지칭)에게무슨일이 생길경우 전시내각이 질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아주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초대사가 당시 張勉에걸고있었던기대는 대단해서 그가 귀국하는것 자체만으로도 사기를 높일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이것이 훗날 李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교체압력의 전조였을지도 모른다.

무초대사는 이전문에서 또 미국정부의 지도자 양성계획에 따라 미국에 가서 연수중이던 한국인 수백명이돌아와서 위기를넘기는데 조력하지않고 귀국을연기하거나 미국에 무작정 눌러앉아서 지도층이 크게부족하다고지적했다.

美合參 "필요하면 撤收…日本 지켜라"

하와이등에 한국亡命정부 樹立논의

결정 재량권가진 맥아더 "美의 궁극목표가 뭐냐" 불만

이런 긴박한 소용돌이 속에 유엔군의 철수문제가 주로 원칙론을 앞세운 애틀리 영국수상과 트루먼 美대통령과 交信을 통해 제기되었다.

애틀리 수상은 그해 1월8일자 트루먼 美대통령에게 장문의 전문을 보냈다.

『영국은 끝까지 싸우되 전쟁은 한반도안에 국한시킨다는 가정아래 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철수할것이라는 정보가있으며 애치슨 국방장관에게서 온 메시지에 의하면 미국이 전쟁목표를 중공에 대한 制限戰으로 바꾸려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은 이어 미국이 蔣介石지휘 국부군을 中共본토에 투입시켜 게릴라전을 벌이도록 유엔에 건의하는 따위의 행동은 중공을 자극, 전쟁을 확대하도록 만들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루먼대통령은 애틀리수상의 부탁에 따라 이전문에대한 답변을 바로 다음날 영국閣議가 열리기전까지 駐英대사관을 거쳐 곧바로 보냈다.

러스크覺書 "抗戰"

트루먼은 이 답신에서『훨씬 우세한 군사력에 밀려 우리군대가 철수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때까지는 침략에대한 抗戰을 계속해야된다는통합의사항에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여기에서『훨씬 우세한 군사력』이란 이야기를 전후해서 다른 경로로 나온 文書들로 미루어 보아 중공군병력의 파격적인 추가투입 또는 소련의 직접 介入을 암시한것으로 판단된다.

트루먼은 한국전을 局地化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중공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으로공격을 확대하거나 중공본토로부터 유엔 지상군을상대로 대규모 공중공격을가해오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켜온 미국의 전쟁수행원칙을 재고할수 밖에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蔣介石군대를중공본토공격에 투입하자고 유엔에 거론할 의도가없다고 못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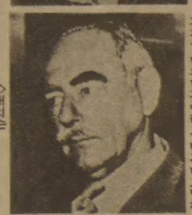
중공의 介入幅을 주시하면서 교환된 이런 외교문서와는 달리 美합참본부가 맥아더사령관에게보낸 작전지침서를보면 유엔군이 철수해야될 상황에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문서에서『만일 한반도 전선이안정되지 않을경우 한국에서 철수하는 군대의 일부는 일본에 배치해서 일본의 안전을보강해야한다』고적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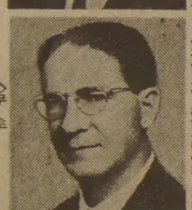
이지침은 맥아더에게 유엔군병사들의 안전과 일본을 보호한다는 기본임무에 우선적배려를 하면서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힐것을 당부하고 유엔군의 병력과 장비에 혹심한 피해를피하기위해 꼭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트루먼

◇맥아더


◇애치슨

◇러스크


◇무초

◇汶山남방에 유엔軍 空輸투입

1951년 3월14일 首都재탈환에 성공한 연합군은 反擊에 박차를 가하기시작했다。사진은 당시 美제187공정연대 낙하산병들이 경기도 汶山남방에 낙하, 적의 퇴로를 끊고있을때의 상황。

철수중 공격받으면 中共內陸 強打검토… 트루먼 "한국인殺害되게 放置못해"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에는 어려운 전제가 붙어있긴 하지만 현지 사령관 맥아더에 전적으로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음을 알수있다.

이에 대해 맥아더사령관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제한된 병력으로 현전선을 유지하자면 병력의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른바『혹심한 손실』은 어느 수준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해명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의 궁극적목표가 한국에 군사적 기반을 유지하는것인가 아예철수하는것인가를 분명히 하라고요구했다.

이럴즈음 러스크차관보는 마치 美행정부안에서 일고있던 철수논의에쐐기를 박기위해서『한국에서의 계속저항』이란 제목의 극비각서를 국무장관앞으로 내놓았다.

러스크는 이각서에서 한국내에서의 계속항쟁이 美국가이익에 극히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방성과合參은 한국내에서 미국이큰손실을 입지않으면서 저항을 계속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도록 해야된다고 건의했다.

러스크의 각서는 한국의지형적 특수성까지 지적해가면서 강력한거를 설득했다.

각서는 먼저 제주도외에도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무수한 섬이 있어 유엔군이 작전상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각서는 이어 이런 지형을 아시아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비정규전을 위해서나 한국내 특공게릴라작전을 전개하는 전술실험지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러스크각서는 이작은 섬들이 수백만 피난민을 수용하는 자리로서 타당성을 강조했으나 이 대목은 食水사정이 좋지않은 사실때문에 후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맥아더사령관이 해명을요구한 각서에대한 답신은 그달12일타전되었다. 合參의 전문은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한반도 일부지역을 장기간 장악하는일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맥아더사령관은 한국철수령을 내릴시기와 상황을 미리추정해놓으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백악관 각의실에서는 트루먼대통령, 애치슨국무, 마셜국방 合參장성들이 모여 한국철수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南海岸 교두보로

이자리에서 트루먼은 한국인들이살해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애치슨장관은 이에대해 일부한국군을 한국연안의 섬과 작은 반도에 남겨두어 중공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수있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어떤가하는 제의도 내놓았다. 동석한 콜린즈장군은 그런 목적이라면 제주도면 족할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반도 철수문제는 12일자 合參이 국방장관에게 보낸『중공과 한국에관한 행동지침』이란 각서와 1월15일 국가 안보회의(NSC)가 작성한보고서 초안에도 거론되어있다.

合參각서는 가능한 한도까지 오래 한국인들을 지원하되 한국영토에서 철수할경우 망명정부를 존속시킨다는 다음단계 구상까지 담고있다.

그런가하면 NSC보고서는『우리군대가 한국으로부터 이동중 중공군의 공격이 치열해지면 해·공군을 동원, 중공내 목표에 치명적 반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국의 장래가 亡命정부수립의 여지까지 타진할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런 상황에서 張勉대사가 귀국길에 오르기앞서 1월17일 러스크국무차관보를 만나 당시 한국정부의 우려사항과 요망사항을 전달했다.

張대사는 최악의 경우 亡命정부를 수립해야 할 경우를 상정, 미국측의견을 타진하고 하와이를 이용할수 있지않을까하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러스크는『우리가 끝까지 싸울것이며 필요하다면 남해의 섬에 남아 싸움을 계속할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때를 전후해서 美합참은 콜린즈 육참총장과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을 한국에 파견, 현지상황을 보고하게했다. 이들은 전황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북괴군과는 달리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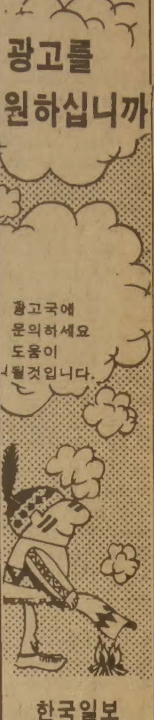
이 중요한 시기에 국무성측이 비교적 장기전략아래 항전론편에 선대신 군작전의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는국방성 합참측은 안전철수에 더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6·25 주요日誌

◇1950년
▲6월25일=북괴군남침개시。
▲6월27일=유엔安保理, 회원국의 對韓지원을요구한美결의안채택。정부 大田으로 이동결정。
▲6월28일=漢江인도교와 철교, 광장교 폭파。북괴군 서울점령。
▲6월29일=맥아더한국전선시찰。
▲6월30일=美스미드부대 烏山도착。
▲7월4일=水原실함。육본, 水原서 平澤 다시 大田으로 이동。딘소장 派韓 美24사단장에 임명。
▲7월7일=맥아더원수,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됨。
▲7월12일=한국군지휘권 유엔군사령관에 이양(大田협정)。
▲7월20일=大田실함。딘소장 포로됨。
▲7월25일=英國, 한국에 지상군파병결정。
▲8월18일=정부기구 大邱서 釜山으로 이동。
▲8월19일=한국3사단浦項탈환。
▲8월24일=中共周恩來수상, 美7함대의 대만해협철수요구。
▲9월15일=유엔군 仁川상륙작전성공。
▲9월24일=韓美해병대서울진입。
▲9월28일=서울탈환。
▲9월29일=정부서울로이동。
▲9월30일=워커중장, 38선돌파명령。맥아더원수, 金日成에 항복권유。
▲10월3일=국군38선돌파。
▲10월7일=유엔총회, 유엔군이 북괴군을 이북까지 추격토록승인。
▲10월8일=유엔군38선돌파。
▲10월19일=유엔군 平壤점악。
▲10월20일=맥아더원수, 워커美8군사령관에게 韓滿국경까지 조속진격명령。美10군단, 元山상륙개시。
▲10월21일=북괴수도를 新義州로 이전。
▲10월25일=中共軍, 한국전개입。
▲10월26일=국군6사단 7연대 압록강도착。국군과 중공군첫충돌。
▲11월4일=美해병사단 중공군124사단과 접전。
▲11월13일=트루먼대통령, 맥아더장군에 만주폭격 금지명령。
▲11월26일=유엔군후퇴시작。
▲12월3일=中性模국방장관, 유엔에 원폭사용요청。
▲12월23일=국군, 美10군단및 10만피난민 興南서 철수。
▲12월27일=리지웨이장군, 美8군사령관에 취임。
◇1951년
▲1월15일=유엔군, 공산군 저지성공。
▲3월14일=유엔군, 서울재탈환。
▲3월24일=李대통령, 韓滿국경진출까지 정전거부선언。
▲3월31일=유엔군선발대, 38선도착。
▲4월11일=맥아더원수, 유엔군사령관등 공직서 해임됨。
▲4월23일=중공군, 춘계공세。
▲6월30일=리지웨이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제의。
▲7월10일=開城서 휴전회담개막。
▲10월27일=현군사분계선에서 휴전합의。
▲10월28일=휴전회담서 포로명단교환。
◇1952년
▲2월18일=巨濟島 포로수용소 폭동。
◇1953년
▲4월1일=공산측, 病傷포로교환동의。
▲4월11일=李대통령, 한국군의 단독북진선언。
▲4월25일=휴전회담 板門店서 재개。
▲5월3일=공산포로6천7백70명 북송완료。
▲6월4일=한국참전 16개국대표, 美국무성서 휴전에관한 비밀회담개최。
▲6월8일=송환거부 포로문제에 합의。
▲6월9일=휴전회담반대 궐기대회。
▲6월18일=李대통령 지시로 반공포로 2만5천명 석방。
▲6월20일=휴전회담결렬。
▲6월25일=로버트슨 특사및 클라크장군 李대통령과 비밀회담。
▲7월27일=휴전회담 板門店서 조인。하오10시기해 전투중지。

한국일보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M8W 3T4
(416) 251-7054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셜본서쪽)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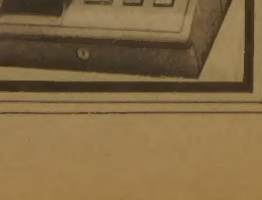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 삼	⊙간 장 병
⊙인 삼	⊙NUT 일체	⊙보 약	⊙비 만 증
⊙웅 담	⊙녹 용	⊙중 풍	⊙신 경 통
⊙산 삼	⊙사 향	⊙심 장 병	⊙고 혈 압

⊙부 인 병
⊙양 기 부 족
⊙위 장 병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 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카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성수

"戰勢유리…平壤까지 進擊하겠다"

美軍部, 애매한 태도보인 國務省에 승인促求

秘史 1951년…韓国 〈2〉

32년만에 공개된 美國務省 비밀文書 全貌

휴한속에 악전고투하던 유엔군은 51년2월중순에 들어 강원도 지평리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거점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대반격작전에 들어갔다. 2월21일에 개시한 「킬러작전」에 이어 3월7일에는 리퍼작전을 벌여 3월15일 서울을 다시 찾게된다. 그리고 그달 19일이 되자 春川이 아군수중에 들어오고 31일이되자 리퍼작전의 목표로한 임진강이남 전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동차사고로 숨진 워커장군에 이어 8군사령관으로 전선을 지휘하던 리지웨이장군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임진강에서 華川 양양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하기위한 「險山」작전을 펼 계획을 맥아더사령관에게 제출했다.

이에대해 맥아더장군은 이계획을 승인하면서도 별도 허가가 있기전에는 38선을 넘지말라고 지시했다.

리지웨이將軍 強硬

이때 워싱턴에서는 이미 협상에 의해 한국사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38선 돌파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워싱턴정가에서 일기 시작했다.

이보다 훨씬 앞서 한국전세가 차츰유엔군측에 유리해지자 2월23일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문제를 다룬 각서를 작성하여 마샬국방장관의 의견을 물은다음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아래 작성된 이각서는 당시 유엔내부 공기를 참작, 맥아더장군에게 앞서 38선돌파를허가해준 50년9월27일자 명령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격을 단행하면 참전국 일부의 반발을 살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애치슨장관은 그러면서도 38선이북에 대한 海空軍의 지원은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각서초본을 받아본 마샬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이것을 합동참모회의이외에 육해공 3군장관들에게 보이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페이스육군, 핀레트공군, 킴볼해군장관은 모두 애치슨각서가 한합참의견으로보고 유엔군은 전략요충이 아닌이상 38선을넘지않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침의견으로 공표하자는안이 나오자 합참의견이 이의를 제기했다.

유엔군을 38선에 묶어둔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군사작전은 방해받을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합참장관은 그대신 앞으로전개할주요작전은 참전국정부에 통고하는 정도에서 그치자고 주장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각군 참모총장들은 처음부터 애치슨제안에 동의할수 없었다. 정치적 목표가 성취되지않는한 38선돌파가 금지될 이유가 없다고보는 견해였다. 맥아더나 리지웨이도 의견이같았다.

공산측에 이런 계획이 누설되는 날에는 공산군의 공세는 다시 격화될것이고 유엔군의 안전은 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합참본부는 미국이 한국에서 모색하는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밝힐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마샬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발언이 확정되지않는한 맥아더장군에게 이미 주어진 작전의 재량권을 해치지 말라고 건의했다. 그결과 애치슨은 국방성과 합참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각서를 보내려던 계획을 단념했다.

이 각서초안시비는 곧 한때 유엔군철수론까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국면에서 전선이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어 어느만큼 여유가 생겼음을 반영하는것이었다. 그런데 이 실랑이속에서 더욱 분명하게드러난 사실이 몇가지 있다.

국무성측은 한국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세우는것이 미국이 희망하는바이기는 하지만 통일을 전쟁의 목표로삼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참전국이 이를 반대할것이며 심지어는 전열에서 이탈 철수할수도 있다는 점을 꼬집어지적했다.

戰線 서서히 安定化

이때 이미 6·25이전 상황으로 원상복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작정한 국무성측은 그러자면 공산군을 38선이북으로 훨씬 밀어올려두는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공산측을 휴전에 응하게할수있는 선이 어디냐를 놓고 美합참지휘부에서는 얼마간 異見이 있었다.

2월27일 合參각서에 의하면 콜린즈육군참모총장은 春川을 점령하면 중공군이 설땅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반면 셔먼해군참모총장은 平壤까지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린즈장군은 이어 元山에서 서쪽으로 허리를 자르는 선을 장악하면 남북한인구의 90%를 차지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로 한달전만해도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극히 비관적인 보고를 했던 콜린즈참모총장의 이같은 주장은 이채로왔다. 그러고보면 워커장군의 경우와는 달리 리지웨이장군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 맥아더의 새로운 지휘권행사가 전세만회를 가져왔고 그에따라 한국전쟁은 보다 밝은 국면으로 돌아설수 있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전세가 어느정도 우리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美국무성 활동은 한반도를 현저하게 비껴나갔다.

그해 1월19일부터 3월6일까지 사이에 국무성은 해외공관과 도합 47건의 교신을 했다.

그중 으뜸이 유엔대표부와가진 13회, 그다음이 駐英대사관과 12회, 駐印대사관과 9회, 駐佛대사관과 3회順이었고, 駐韓대사 무초와의 交信은 2월12일자와 2월24일자 단 두회에 불과했다.

유엔代表部는 이맘때쯤 중공을 침략자로 낙인찍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공을 외교적으로 발을 묶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전참전국들의 행동통일을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을 24시간 협의대상으로 삼았기때문에 駐英대사관은 바빴다.

그러가하면 네루수상이 집권중이었던 인도는 中共의 意中을 읽어내는 창구로서 더할나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北京주재 인도大使 파니카가 중공당국과 만나서 타진한 결과는 곧바로 그날 헨더슨미국대사를 통해 국무성에 타전되었다.

네루 中共의중파악

중공이 휴전수락조건으로 무엇을 내세우고 있나를 밝혀준것 역시 1월24일밤8시에 수신된 헨더슨의 전문이었다.

중공은 그때 공개회담을 거쳐 확정되는 선에서 휴전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다. 또 臺灣문제를 한국문제와 맞물려서 자기들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바라는 희망도 노출되었다. 대만해협을 초계중이던 미국함대는 철수해야하며 한국문제가 타결되면서 중공의 법적지위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중공측은 주장해왔다.

인도측은 중공이 덮어놓고 한국문제는 한국인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후퇴, 한국문제 휴전회담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한점은 중공측이 중요한 양보를 한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응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네루首相이 1월22일 중공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평화를 찾을수 있는 길을 찾되 어느 대국이든 「屈辱」을 주는 행동을 삼가달라는 호소전문을 보낸 사실도 알려졌다.

어렵게 돌아선 勝機를 잡아 북진통일을 李承晩대통령이 한창 외치고 있을무렵 동란의 消火작업은 한국인들의 머리위로 부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2월12일자 무초 駐韓대사의 전문만이 한국민의 열망을 외롭게 반영했을뿐.

『…무순 수를 써서라도 적의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데 동감이다. 나도 이점을 李承晩과 趙炳玉(당시 內務長官) 그리고 귀국후 張勉에게 여러번 강조했다.

그러나 38선을 다시 그으려는 어떠한 기도가 일어나면 모든 한국인들이 격렬하게 일어날것이다. 그렇게되면 한국인들을 진정시키고 한국군을 통솔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무초대사는 유엔내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동안에 6·25이전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되 그것점에서 38선을 다시긋는 일은 절대로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공측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그들로 하여금 평화적 타결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게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군이 서울과 평양사이 가장방어하기 좋은 지형을 차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적의 보급로를 길게확산시켜 공세를 취할수 없게 해야하며 한국군 강화계획을 당장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정세가 미국으로하여금 잠정적인 해결을 할수밖에 없도록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통일과 독립에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다고 본다는 자기나름의 소신을피력했다.

무초대사는 당시 유리한 상황전개는 한국전쟁 자체의 해결뿐아니라 極東심지어는 유럽에서의 대결을 미국편에 유리하게 풀어나갈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무초대사는 이어 2월24일 釜山에서 38선에 관해 유엔한국위원단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리는 전문을 국방성에 보냈다. 그전문에 의하면 당시 네덜란드와 파키스탄대표는 이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무초대사는 그들이 38선넘어 공격작전을 반대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터키와 필리핀 대표는 분명하게 贊反태도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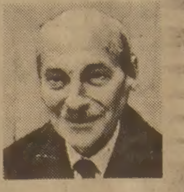
반면 濠洲와 태국, 칠레대표는 38선은 묵살해야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심리적 정치적 국제적 목적에 비추어볼때 38선을 기준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인들은 38선이라는 존재에 너나할것없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장차의분계선은 38선이 아닌 다른 형태의것이면 마지못해서나마 받아들일지 모른다」— 濠洲를 비롯한 세나라 대표들이 제기한 38선의 심리적 逆反應은 훗날 지금의휴전선의 출현에 기여했을법하다.

무초대사는 이날 전문에서 한국인들이 완전통일이 아닌 상태는 결코 받아들이려하지 않을것임을 다시 상기시켰다.

38線 돌파논쟁

國務省 "統韓이 「戰爭목표」는 아니다"

◇네 루


◇애 틀 리

◇周恩來

◇콜 린 즈

◇리지웨이

◇9·28 서울수복후 38선돌파여부를 놓고 美국무성과 국방성간에 큰논란이 벌어졌다. 이것은 1·4후퇴 후 재반격작전때도 마찬가지였다. 9·28수복후 한국군이 먼저 38선을 돌파한것은 그러한 의견차이로부터 타협의 소산이었다. (사진은 서울탈환작전때의 모습)

한국 "완전統一 아니면 어떤조건도 못받아"

칠레등도 38線반대

그러한 현지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탓인지 아니면 공산측에 미국의 의도를 노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탓인지 어쨌든 이맘때 미국정부내에서 38선에관한 논란은 결론을 애매하게 해두고 있었다.

2월20일에 작성된 국무성간부회의비망록에 의하면 러스크차관보는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미국은 정치 군사적 여건이나목표가 38선을 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어도 넘지않겠다고 공약을 한바 없다.

둘째로 미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참전국들과 협의는 하겠지만 그들이 제지한다고 해서 입장을 후퇴시키지 못할수도 있다.

세째 유엔결의를 또 얻어야 38선을넘을수 있다고 못박아서 말할수도 없다.

어느지점을 설정하고 한국전을 휴전으로 이끌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할때 현지사령관 맥아더는 압록강 수풍발전소댐 폭파허락요청을 합참본부에 냈다. 이에대해 러스크는 만주와 접경한 압록강교량을 폭파하는 문제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문제점들이 이댐 폭파에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견을 브래들리 合參의장에게 전했다. 브래들리 의장은 종전의 지시에서 어떤변화가 있기를 군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운데 소련측에서도 한국전수행에 얼마간 자세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 증좌가 비치기 시작했다.

3월10일 유엔주재 미국부대사가 국무성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중공이 소련에 대해 중포화기와 비행기공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당시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의 말을 인용한 부대사의 말은 北京과 모스크바간에 잠정적으로 손발이 맞지않을 정도를 지나쳐 중공이 한국전 참전을 기화로 휴전후 북한에 과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지 모른다. 소련측 우려의 한자락을 반영하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측은 이같은 정보를 한국에서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시기가 온 증거로 판단한것같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메아리

名山

서울은 名山의 고장이다.

王朝시대 서울을 노래한 『漢陽歌』의 표현을 빌면, 崑崙山의 한줄기가 동해로 돌아서 白頭山이 되고, 함경도·강원도를 지나 道峯에 머문다. 그 기운은 『北極을 받치는듯/芙蓉을 꽂았는듯/수룡이 오는 기세/群仙이 모였는듯』하고, 다시 北漢山에 이르러서는 『천년을 經營인가/만년을 經營인가』하는 감탄을 자아낸다.

都城을 둘러선 山勢도 바로 明堂의 그 것이다.

『北岳이 入首되고
終南山이 案山이라
靑龍은 駱駝되요
白虎는 길마재란』

北岳을 主山으로 하여, 맞은 쪽의 南山, 왼쪽으로 駱山, 오른쪽으로 鞍山이 벌여선 형세가 風水地理說에 꼭들어 맞음을 읊은 것이다.

이같은 명당을 李太祖의 서울定都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登極하기전에 지었다는 시귀에는 『손 내밀어 덩굴 휘어 잡으며 푸른 봉우리 오르니/흰구름속의 한 암자가 놓이자리잡고 있다/눈에 보이는 곳 다 가져다 우리 땅을 삼으면/楚나라·越나라·江南땅을 어찌 다 담지 못하오리』 한것이 있다(燃藜室記述 卷一).

어느 산에 올라서지은 시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北漢山上의 감회일것이라는 짐작(서울六百年史)은 제법 그럴싸하다. 서울定都의 꿈이 싯귀 속에 싹터 있다고 해야할지도 모른다.

李太祖가 읊은 그대로, 北漢山 삼삼봉은 발아래 四方 수백리의 기름진 땅을 펼쳐 보여준다. 경기도의 여러 산을 굽어 보고, 멀리는 江華·永宗의 서해 여러 섬을 바라 본다. 골짝이 깊고 水石이 정결하니, 高僧들이 修道處로 되고, 선비들이 숨어 책을 읽는 仙境을 이룬다. 이 경지를 한번 보고는 李太祖가 아니더라도, 氣字壯大한 시 한수쯤 절로 나옴직하다.

風水야 여하간에 산을 빼고 서울의 景觀은 말할수가 없다. 산을 빼고는 서울살이의 雅趣가 온전 할 수 없다. 都城안의 三淸洞 松石園 南山 駱山이 모두 봄·가을에 즐길만하고, 城밖에나서면 洗劍亭 貞陵 城北洞 牛耳洞과 北漢山城등 三角山·道峰골짝이 모두 빼어난 名勝이다. 이것이 산을 가까이, 산과 산사이 盆地에 자리한 서울의 面目이었다.

開化期 서양사람들의 서울印象記를 보면, 한결같은것이 서울을 둘러선 山勢의 아름다움이다. 그들이 잊지않고 特筆하는것은 都城을 벗어나 近郊의 산을 찾는 즐거움이다. 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코스가 北漢山城이다.

지금의 서울도 그 즐거움은 마찬가지다. 산이 가까우니, 「旅行」을 않고도 「山行」을 한다. 산의 변화가 많으니, 자기 기량에 맞추어 산에 오르고, 암벽등반을 시도한다. 이런 「登山도시」가 또 어디 있을까. 등산을 해본 외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감탄한다. 서울의 近郊登山이 성하고, 그 여세가 히말라야에 미친 것은 당연한 추세다.

그러나 서울의 그 자랑거리가, 요즘 와서는 失色을 한것 같다. 이마에 와닿던 南山은 고층빌딩이 가려 버렸다. 駱山은 시민아파트로 덮였고 발길 닿을만한 골짜마다 집이 들어섰다. 호젓해야 할 산길에는 한길같은 雜音이 있고, 덩달아 산의 景觀이 시든다. 그리고 주말마다 들리는 산의 悲報들….

지난 주말에는 또 仁壽峰암벽에서 대학생 7명이 죽었다. 무모한 등반, 날씨의 급변, 너무늦은 구조활동—모두가 진작부터 들어본 말들이다.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되풀이가 거듭된다.

잠시 신문사 조사부의 스크랩을 뒤적여도, 지난 20년사이 道峰·北漢山에서의 조난사고는, 사망자를 낸 것만도 42건, 사망자가 67명에 이른다. 이만한 비극에서 배운 것이 없다니, 너무 無感覺하지 않은가.

近郊登山에도 위험은 따른다. 그러나 그위험은 「計算된 위험」이어야 한다. 그리고 近郊登山이 시민건강을 위해 요긴하다고 할때의 산은 어디까지나 「管理된 空間」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人災나 같다.

서울은 名山의 고장이다. 그 자랑을 온전하게 하는 방도를 찬찬히 생각해 봐야겠다.

金 昌 悅 〈編輯委員〉

記者의 눈

植木의 經濟性

오늘 (5일)은 제38회 식목일. 전국토의 66%가 산이면서도 임야가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식목의 중요성은 언제나 최우선이다.

따라서 올해에도 산림청은 식목을 전국적으로 권장하면서 「산지를 국민경제권으로 조성」한것을 기집하고있다. 우리나라의산림은 해방전 일제와 6·25로 황폐화 됐었다.

이를 복구하기위해 산림청은 지난 73년 제1차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국토녹화사업을 시작했다.

이사업은 정부의 과감한 시책으로 계획기간을 앞당겨 목표의 1차 이정표를 돌파했던것이다.

속성수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둥산도 사라졌다.

이쯤해서 나온게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녹화만을 부르짖던 정책이 계획연도를 앞당겨 79년부터는 산지의 자원화로 선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국이라는 필연적인 민족적 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 우리는 정책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 산지의 林木蓄積은 1ha당 23㎥다. 이것은 미국의 66㎥, 일본의 75㎥, 서독의 1백50㎥에 비하면 거의 황토나 마찬가지라는 수치다.

또 나무의 나이로 보면전 산지중 93%인 5백83만8천ha를 30년미만생이 차지하고있고 축적률도 30년미만짜리가 전체의 69%나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나무가 모두 어려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활용할수 없다는 말이 된다. 벌목할 산림은 아직도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덮어놓고 많이 심는다고 되는건 아니다. 녹화를 서두르던 초기에비하면 점차 조림계획은 축소되고있다. 지난해 15만4천ha가 금년에는 9만ha로 줄었다.

나무 심을곳이 줄어들었다고 본다면 절대녹화의측면에서 반가운현상이고 경제조림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수종을 심으려면 심어진 나무를 베어내야할 입장이라는점이 종래의 녹화개념과는 이율배반이 된다. 때문에 전체임야의 72%나되는 사유림의 산주와 마찰이일어난다. 빚지는 수종갱신을 왜하느냐는 것이 산주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니 산주가 부담없이 참여할수있는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식목도 좋고 육림도 중요하지만 이젠 철저히 경제성을 생각해야 할때가됐다.

【裵琪哲사회부기자】

테레비죤선교방송

생명의 말씀

일요일 8:30-9:00a.m.
CITY T.V. (Channel 79, Cable 7)

수요일 오전 10:30-11:00
M.T.V. (Channel 47, Cable 4)

토론토한인장로교회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TEL: (416) 535-6864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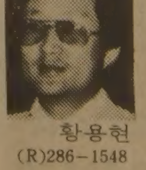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어
(1)주매상: $12,000, $9,000, $6,500, $4,300, $4,000, $4,000, $3,800(임윤식)
(2)그로서리: 주매상 $14,000 asking: $200,000(이헌영)
주매상 $7,500 asking: $125,000(이헌영)
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3)기프트숍(Gift Shop): 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
●하드웨어: 연매상 $250,000 asking $35,000+Stock(임윤식)
●Nut & Candy Shop
(1)Busy Shopping area에 있는, 권리금 $47,000(유웅복)
(2)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107,000(유웅복)
(3)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권리금 $35,000(황용현)

●꽃가게: 여자분 혼자서 경영이 가능한 주 6일 오픈,
권리금: $45,000(임윤식)
●가게 꾸밀 건물
(1)주매상 $5,000 예상하는 빈가게 down $25,000(황용현)
●드라이크리닝(Dry Cleaning)
(1)주매상 $1,800 오샤와, 새로꾸밈 asking: $69,000, down: $40,000(황용현)
(2)주매상 $1,300 스카보로 아파트 밀집지역 asking: $48,000(황용현)
●Fast Food(Mall에 있는) asking: $88,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er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투자용 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가진) Asking: $525,000, down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own: $200,000(이헌영)
(3)Laundry 가게 등(6개의 아파트를 가진) down: $150,000(유웅복)
(4)코너 건물, asking: $89,000(유웅복)
(5)15개 스토어가 들어있는 Plaza, asking: $1,350,000(유웅복)
(6)가게 달린 집(Yonge at Aurora) asking: $136,000(유웅복)
(7)Plaza(14개 가게가 달린) asking: $1,500,000(황용현)
(8)건물 달린 가게(코너건물) 주매상 $5,000
가게: $50,000, 건물: $120,000(황용현)
(9)가게 달린 집, 연매상: $300,000, asking: $154,000
down: $60,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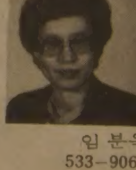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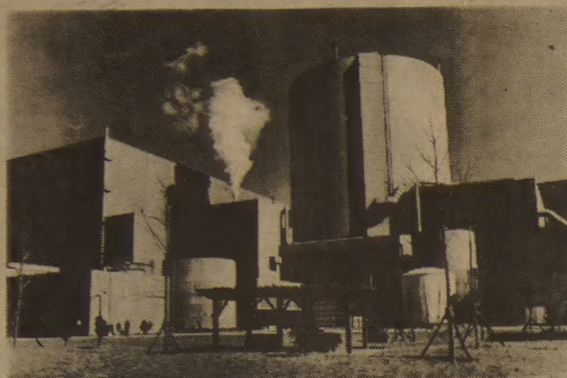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7-9395

29弗에도 안팔리는 내리막길 大勢… 어디쯤서 멈출까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정상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체에너지개발에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사진은 78년4월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古里1號機。

國內「代替정책」은 계속

올해 2百80萬톤 절약

産業구조 변동아닌「利用합리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多消費型이어서 구조적인 개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것은 여러해전의 일이다.

에너지多消費型의 산업구조를 갖게 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원인은 공업화가 늦었기때문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에너지를덜사용하는경공업, 컴퓨터등으로 전환하기시작했을때 우리는 뒤늦게 중화학에 손을 대어 에너지쇼크를겪을때마다 더큰시련을 겪어야만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인하됐는데도 국내유가및 전력요금을 일부만인하조정하고 앞으로의유가변동사태에 대비, 에너지절약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하는한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에너지를 덜쓰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다짐하고있다.

에너지多消費型산업을 말할때 흔히 알려진 것처럼 중화학공업같은 多消費, 경공업은 低消費라고 싸잡아 말하기는 어렵다.

에너지多消費의 판별기준은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투입효율 또는 생산비 가운데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등을 감안해서 결정된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도 산업구조의 변동이 아니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따른 절감효과를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야한다.

단순히 아껴쓰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것은 이미 한계에달했다.

작년의경우 정부는 에너지절약실천의 해로정하고 총에너지의 10%절감을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해왔다.

과거에는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으나 8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증가한데 비하여 에너지소비는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잠정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절약실적은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라고 볼수도 있으나 작년겨울 이상난동과 에너지 소비산업의 상대적인 성장저조에 따른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에너지절감목표를 5%로 세우고 소비억제에 의한 단순절약 보다는 노후시설교체등을 통한 열효율제고로 원천적인 절약을 추진하고있다.

2천억원규모의 에너지절약 설비자금및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등을 융자지원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76개업체중 5개업체에 대해서는 연내에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할 계획이다.

또한 1백개 에너지 多消費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제품당 적정 에너지 이용량을 산출, 이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지도와 독려를 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기술이 미숙한 1만1천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 현장기술지도를 추진중이다.

이렇게하여 금년중 2백80만톤의 석유를 절약, 6억4천만달러의 외화 절감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하고있는 에너지절약방안을 부문별로보면 전력부문에서 50%이상에 달하고있는 석유의존도를줄이기위해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로의 대체를 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는 古里原電2호기(65만㎾) 및 유연탄발전소인 三千浦화력1호기(56만㎾) 高亭화력 1호기(50만㎾)무연탄전용발전소인 西海화력1·2호기(40만㎾) 가스와 유류 겸용발전소인 平澤화력3·4호기(70만㎾)를 준공시켜 총2백81만㎾의 非石油발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자력·석탄발전소들이 계획대로 준공될경우 발전소의 석유의존도는 현재의 69·7%에서 금년말에는 60·1% 86년에는 37% 91년에는 16·7%로 줄어들게된다.

또한 수력전원개발을위해 91년까지 건설하기로한 忠州, 陝川, 住岩, 臨溪, 臨河, 咸陽, 北川, 明川등 8개댐 (86만㎾)을 이번유가인하에서 얻어지는 석유안정기금으로 87년까지 조기 완공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업체들의 연료대체를 적극 추진, 82년말까지 시멘트업체가 보유하고있는 燒成爐 총34기중 33기를 유연탄 混燒率을 90·7%까지 올려 약1천16만배럴의 벙커C를 절약, 1억5천2백만달러의외화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년에는 混燒率을 95%선까지 끌어올려 1천1백만배럴의 벙커C유를 절약, 1억7천4백만달러이상의 에너지수입대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중이다.

일반산업에 대해서도 유연탄대체작업을 적극 추진, 먼저 제지 섬유 식품등과 같이 연료비구성이 높은 업종 및 보일러설비용량이 큰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연료전환 주요대상업체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즉 85년까지를 연료대체를 위한 여건조성단계로 설정, 仁川 蔚山 北坪 木浦등에 석탄전용부두를 건설, 소규모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방침을세워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대체에너지개발계획은 화려한 구호에비해 두드러진 실적이나 알맹이가 없다. 해마다 동자부가 力點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각종정부사업중 우선순위에 밀려난 경우가 많고 일반기업의 호응도가 낮아 큰성과를 거두지못하고있다.

불안정한 국제원유시장동향에대한 정보체계도 미흡하고 원유가격이 인하되자 그인하분에서 석유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나선것도 뒤집어보면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소홀했던것을 반증하는것이다.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81년 88%에서 작년에는 77%로 낮추어졌으나 앞으로 더욱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유가하락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리한 도입선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리한 장기계약물량및 도입조건을 조정하고 현물시장의 값싼 원유를 도입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정유사의 對外교섭창구를 더욱 강화하도록하는 한편 현재 油開公에 의지하고있는 해외석유시장동향정보체계도 대폭활성화해야 할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석유를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당장얼마간 원유가가 내렸다고 주춤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대륙붕광구의 탐사시추작업은 동요없이 밀고 나가야한다.

이밖에 태양에너지, 오일샌드등 미래의 대체에너지개발작업도 꾸준히추진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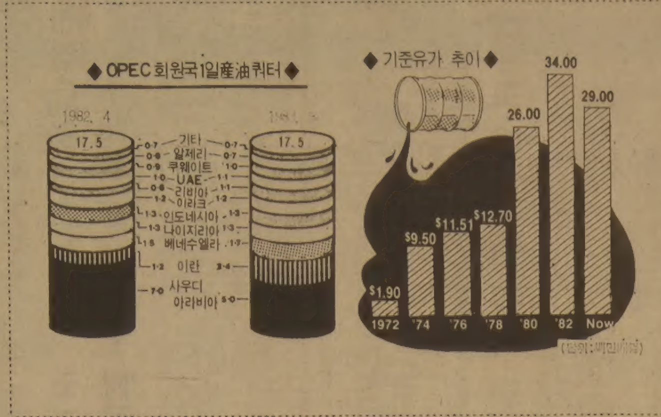
이점에서 국제유가인하분중 국민들이 허리띠를 또한번 졸라매가며 마련한 석유안정기금도 이를 그대로 잡래유가변동에 대비한 석유비축기금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朴永益 기자】

原油값을 占쳐보면

産油國들 싸게라도 팔아야할 事情

공급과잉 계속…일부선 "20弗멀잖다"



OPEC(石油輸出國기구)는 29달러유가방어를 위해 안간힘을쓰고 있지만 유가전쟁위기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원유시장은 계속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고 유가전망도 온통 비관론일색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20달러유가시대가 멀지않았다고 예고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그렇듯 새유가체계는 短命에 그칠 공산이 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널드·호름美에너지장관은 유가는 25달러내지 그이하로 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 스위스 유니온은행은 현29달러 기준유가는 한낱 이론상의 가격일뿐 실제판매가는 이를 훨씬 밑돌것으로 예측했다. 中東經濟調査誌(MEES)는 BNOC(영국석유공사)가 30달러선이상의 유가기준을 지키지않을 것같으면 세계유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20달러 폭락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원유가격및 수급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물시장은 벌써 약세기조로 돌아섰다. 거래는 한산하기이를데없으며 賣方呼價만 이루어지고있다. 한중개인은 3~4개월후면 배럴당 20~22달러를 받는데 만족해야할 것같다고 내다봤다.

유가인하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도처에 도사리고있다. 우선 물량이주체할수없을정도로 남아돈다.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면 값은 내리게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원유수요는 격감해온데 반해 공급은 그에 비례하여 줄지않았다. 불황(54%) 에너지절약(27%) 석탄등연료전환(19%)등에 따라 수요는 크게 줄어든대신 유가를 내리게할 목적으로 서방석유회사들은 하루4백만배럴~6백만배럴의 비축재고를 내다팔았으며 非OPEC국가들의 물량공세도 더해졌기때문에 공급과잉사태가 빚어졌다.

가격인하경쟁을 유발할수있는 가장 직접적인 불안요인은 BNOC의 유가재인하압력. BNOC의 거래선들은 유가를 2달러정도 더 내리라고 압력을 넣고있다. 최소한 2달러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월터즈DP(영국석유메이저)회장은 북해産 원유가 나이지리아産니油보다 배럴당 50센트~75센트정도 싸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BNOC는 고객들의 압력에 따라 최근 북해産유가를나이지리아産보다 1달러~50센트가 낮은 29달러~29달러50센트로 재인하할 뜻을 비쳤다. 영국은 油質이 서로 비슷, 경쟁관계에 있는 북해산 원유가격이 나이지리아産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한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고 이처럼 가격재인하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것이다.

북해産유가인하는 나이지리아産유가의 재인하를 불러일으킨다. 원유收入을 늘리지않고서는 재정위기를 넘길수없는것이 현 나이지리아경제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過外債에 허덕여 원리금을 체불하고 있을뿐더러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멀지않아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이다. 재정긴축을 할수도 없고 수입규제조치도 취할수없는 곤경에 처해있다. 원유를 파격적으로 싼값에라도 팔아치워야한다. 이는 다시 OPEC의 가격질서를 혼란에 빠뜨려 가격인하경쟁을 가속화시킬것이 뻔하다.

이란도 OPEC의 결렬을 가세하고있다. 이란은 지난번런던회의에서 가격문제에 관한한 항구, 유보적태도를 취해오더니 최근에는 새유가는불법적인것」이며 사우디등 OPEC내의 페르시아灣산유국들의 가격인하합의를「배반행위」로 규정,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런던합의를 구속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하고있는 이란은 독자적으로 공시가를 기준유가보다 훨씬 낮은 24달러20센트로 굳고시할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란이 독자적인가격결정을 감행하면 OPEC의 가격카르텔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린다. 이론상의 유가는 존재할지언정 OPEC의 가격체계는 자율경쟁시대로 접어든다. 이라크와 장기전쟁을 치르고있는 이란으로서는 연간40억달러상당의 戰費를 조달하자면 불가불 OPEC의협정을 무시할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극심한 財政難에다「外債충당」위험에 파산선고를 하지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수없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등의 유가재인하도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사우디가 생산조정자역할을 성실하게 한다지도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1천6백5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해외투자금융자산을 보유, 유가인하충격에 2~3년동안을 넉넉히 살아남을수있는 사우디이지만 막대한경제적손실을 무릅쓰고 하루1백만배럴정도의 産油量을 감내하면서 생산조정자로만 남아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소련 이집트등 非OPEC국가들의 잇따른 원유가인하조치도 새기준유가체계를 와해, 유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고있다.

밀톤·프리드먼교수는 카르텔 속성때문에 유가재인하는 불가피한것으로 보고있다. 카르텔협정에의한 가격인상은 판매량을 줄게하고 소비자들이 공급가에 적응하고 새生産源이 출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프리드먼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때도 석립된다고 주장한다. 가격체계붕괴때는 이와는 정반대의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생산자가 쉽사리 시장에서 사라지지않을뿐더러 소비자들이 저유가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하지는않을지라도 안정가격이 형성될때 까지는 점진적인 가격인하가예상된다는것이다.

OPEC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시장환경이 이처럼 악화되어있고보면 기준유가의 재인하는 필지의 사실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가재인하를 점치지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정도이다. 그러나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는것을 저지하는 지지세력도 만만치는 않다.

◇고민하는 야마니　숱한 우여곡절과 난항을 거듭해야했던 OPEC 런던회의에서 고뇌에 찬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石油相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OPEC는 런던회의에서 유가및 산유량협정에 극적인합의를 보았으나 여전한 시장불안으로 새가격체계마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세계景氣 과열되면 需要급증"…長期로는 反騰전망도

장기적으로는 값이 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축이 많다. 高油價중압에서 벗어난 세계경제는 회복되어 경기과열현상이 빚어지면 원유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날수도있다. 제3의 오일쇼크가 세계경제를 다시 원유공포속으로 몰아넣을수도 있다. 서방석유회사들의 90일적정재고가 오는4월말께는 바닥에달해 이들은 재고충당을 위해 원유구매에 나서고 이는 원유수요를 증가시킬것이다. OPEC의 누군가 협정을 깨고말것이라는 예상이 무성하지만 OPEC는 회원국들이 배정쿼터를 위반치못하도록하는 제도적장치를 런던회의에서 마련해놓았다. 즉 배정쿼터를 분기별로적용, 미소진분은 차기분기이후로 이월적용할수없도록 조치해 놓았다. OPEC회원국들은 유가전쟁이 결국은 그들모두에게 손해밖에 가져오지않는다는 사실을 깊이인식하고있어 의외로 굳은 결속을 과시할수있는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하지만 유가를 친두르는힘은 그저지세력을 압도하고있다. 단기적으로 유가가약세를 면치못할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저유가가 반드시세계경제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유가가 광란적으로 반등할 소지는 항상 안고있다.석유자원는 한계자원이다. 제3, 제4의오일쇼크는 당분간 유예됐을뿐 언제라도 다시 불어닥칠수있다. 오일달러를 힘의 원천으로 삼았던 OPEC가 유가인하로 힘이약화된 것은 中東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도있다. 힘의공백을틈타 소련이 中東에서 정치·군사적도발을 하지않으리라고는 누구도보장할수없다. 원유가는 점진적으로 적정가격수준까지 내려 안정을 되찾아야한다. 또한번의 석유충격을 회피하기위해 선진공업국들은 원유재고조절기능을 강화, 값이오르면 내다팔고, 내리면 사들이며 세계각국은 산유국들의 투자유지를 강화, 산유국들로하여금 값의등락에따라 산유량을 자동조절토록하는 한편 산유국과 석유소비국간의 협력증대가 한층강화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朴昊銀기자】

한국일보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신문구독자 10명중 9명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그리고 항상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매일매일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일간신문이기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신문

"한국일보가 새로와졌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요즘 한국일보는 내용이 좋다."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말해주는 독자도 적지 않읍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새로와진 것인지, 내용이 썩 좋아진 것인지 장담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일보가 ▲가장 많은 기자에 의해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한층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YMCA 한인회원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강관리, 신체적성, 체력증진을 위해 YMCA에서는 토요회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Y회원이 되어 한인을 위한 Y봉사 사업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면……매 토요일 오후5시~10시까지 WEST END YMCA(931 College)에서 여러가지 운동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Y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읍니다.

- •라켓볼　•자유수영
- •스쿼쉬　•태권도
- •조깅　•역도
- •배구　•자전거 타기
- •탁구　•신체적성운동(Fitness Class)
- •농구　•유니버셜 짐
- •배드민톤　•법률상담 강좌
- •사우나　•(유료 베이비씨팅)
- •수영강습

※클럽회원 모집중입니다.(탁구, 배드밍톤, 조깅, 라켓볼, 스쿼쉬, 영어토의 클럽, 직장청년, 부인, 노인, 부부클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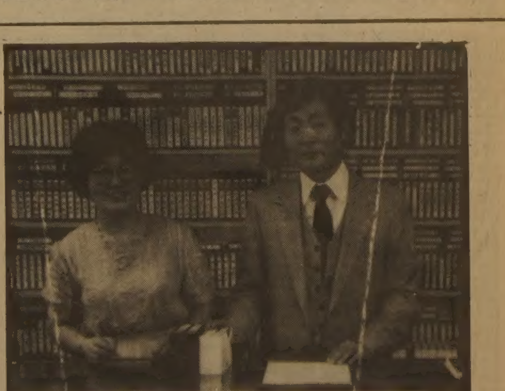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년회비)
- •성인 $50
- •부부 $95
- •가족 $110
- •하루회원 : 성인 $6, 어린이 $5
- •노인·학생 $30
- •어린이 $25

※입회희망자는 오셔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해 보실수 있읍니다(4월중)
준비물 : 운동화, 운동복, 수영복

1983년 4월 일

토론토 한인 Y 회원모집위원장
김 순 창
총 무 김 창 열

우편주소 :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1
전 화 : 536-1166(미스터 김)



한국에서 절찬리상영중인
해빙, 여자의 강,
보통사람들, 풍운등 입하!
Now 1,600테잎 보유
외국테잎 다수보유!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한국일보 (특집판)

어디까지「惡德」이고 어디까지「레저」인가

도박의 法律學

놀이와 不法과…애매한 限界

"太古부터 人間만 지닌 射倖본능…證券·경마·보험도 도박의일종"

『친구들과 심심풀이 화투놀이를 한것은 도박죄로 볼수없고 오락에불과하다』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화제가되고있다.

이와 유사한 관결이 과거에도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의 대법원판결이 「명판결」로 일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것은 「도박과 오락의 한계」를 구체적이고도 명쾌하게 갈파했기때문인것같다.

도박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다.

후추나 아프리카의 토인사회에는 태고적부터 도박이있었던듯, 그 유적이나 동굴벽화에서 노름하는 그림이 발견되고있다.

로마시대 게르만족들사이에서도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고 노예신세로 전락하는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밑천이 떨어지면 처자를, 마침내는 자신의 자유까지 걸고 노름을 하다가 패가망신했다.

중국에서는 마판에 오른손을 걸었다가 손목잘린 일화도 있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유태인도 주사위놀이니 트럼프놀음을 즐겼다. 예수를 처형할 때 로마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갖기위해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신약성서에 나와있기도하다.

이같은 사실들은 도박이란 가위 인류학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것이라는 주장이 나올만 하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사행심(射倖心)의 본능이 있기때문이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도박을 불법화하고 단속을 해온것은 무엇때문일까.

노름으로 벌어들인돈을 도둑질한 돈으로단정한 법이있는가하면, 회교도의 성서코란은 아예 장기이외의 모든 「놀이」를 금하고있다.

시간·回數·판돈규모에 달려
"술내기無罪"등 관용적 判例

그러나 법과단속으로 도박이 근절된예는 없었다. 여기서 도박과 놀이, 도박과 오락의 구분이 문제가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달리 놀이를 즐길줄아는동물이다.

서양에서 재능이나 기술을필요로하는 놀이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순전히 운수나 사행심을 걸고하는 노름을 불법시한것도이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따질때는 도박과 오락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

우리나라 형법 제2백46조는 1항에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항은 「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때 1항단서인「일시오락의 정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셈이다.

대법원은 지난59년「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賭物)의 근소성등 각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구체적으로 대법원판결례를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현대생활이 복잡해짐에따라 그 범위와 해석이 약간씩 넓어지고 달라져왔음을 느낄수있다.

가령 66년12월27일 대법원은『음식점에서 1회에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면서 패자로부터 거둔돈으로 술값을 내기로 약정한후 이를 담배및 음식값으로 소비했다면 오락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때돈 10원은 지금으로는 5백원정도에 해당한다.

또 69년7월22일엔『피고인들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각자1백원 정도로 음료보류에 술내기 화투를20분가량했다면「일시오락의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객지생활을 하는 동료를 위로하기위해 돈5백원씩을 내어 술내기마작을 한것은일시적인 오락정도라할수있다』(74년3월12일) 이때의 5백원은 지금의 5천원 이상이다.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로 직업안내소에 종업원을 구하러갔다가 술내기화투를 40분간 처 판돈이 7천원정도에 불과했다면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79년11월13일)

『사기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할때는 사기죄만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나『노름빚은 받을 권리가없다』는 판례도 있다.

이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 도박과 오락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재미있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대법원이 지난81년 전국지법에 기소(약식기소 포함)돼 형이 확정된 도박사건 피고인 8백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의하면 한판에 5백원정도를 거는 도박의 경우도 1회에 2시간정도씩 20~30회를 계속하면 「단순도박」으로 인정돼 벌금·과료등 재산형을 받게되는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회 1만원이상의 돈을 걸며 1백회이상 계속하고 판돈규모 50만원이상인경우는 「상습도박」으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보고서는 법원이 단순과 상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도박소요시간▲도박횟수▲1회에 거는 돈의 액수▲판돈규모등이 참작되는것으로 지적하고있다.

즉 도박소요시간의경우 단순도박은 1회(1판이아님)에 2시간이 가장많은데비해 상습도박은 1일이상이 가장 많고 심지어 10개월이나 계속 도박을한 사람도있었다.

도박횟수를 보면 단순도박은 20회이상 30회이내, 상습도박은 70회이상 1백회이내가 가장 많다.

1회에 거는 돈이 액수는 단순도박의 경우 5백원이가장 많고 주로 1만원이내인데 반해 상습도박은 1만원이 가장 많고 최고 1백만원까지 있으며 판돈규모는 단순도박은 10만원이 가장 많았고 상습도박은 50만원인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10차례에 걸쳐 내기바둑을 둔 프로초단의 전문기사에게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은 지난달 26일 내기바둑을두면서 10집을 이기면 1만원을 주기로하고 5명과 10차례에 걸쳐 내기바둑을 둔 프로초단의 전문기사 郭모씨(25)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바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서울형사지법항소부는 지난80년3월 행인들을 상대로 한판에 5천원짜리 박보장기를 두다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金모씨에게 『승부가 고도의 묘수에의해 결정된다하더라고 5천원씩이나 돈을 걸고 내기를 한이상 유사사행행위로 봐야한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白모씨(52)는 81년7월17일하오 大邱시내 술집에서 친구3명과 한판에 1백원씩 걸고 2시간가량 화투놀이를하다적발돼 벌금5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던것.

주심 姜友永대법원판사는 『도박죄의 입법취지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도박죄의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도박액수가 적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않을 정도라면 심신의 긴장을 푸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 무죄판결이유를 밝히고있다.

즉 국민의 건전한근로관념에 저해되지않고 친구끼리 심신의피로를 풀기위해 우연성에 기인한 사실에 내기를 걸어서 득실(得失)을 정하는것은 한때의오락으로 해석해야된다는 취지인것이다.

따라서 잔치집이나 상가집에서 친구들끼리 심심풀이의 화투놀이를 하는것을 법규위반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풀이다. 또 골퍼들의 저녁내기나 화투치기의 술값내기가 모두 같은이치로 도박죄로처벌할수는 없다는 논리인셈이다.

어떻게보면 형법에 도박죄의 처벌규정을 둔것은 퇴폐나 근로의욕저하를 막자는뜻도있지만 그보다는 도박으로인해 일어나기쉬운 폭력, 사기, 살인, 강절도등의 부수적범죄의 위험성때문인 것이다.

검찰이 이번 무죄사건에상고이유로 내세운『지금 사회일각에 퇴폐풍조,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심리가 팽배해있는터에, 이에 경종을 울리기위해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도박」하면 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대체로 패가망신하는 악덕이요,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덕이란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는게사실이다. 주부도박단, 연예인도박단도 건전한놀이의 인상을 흐리는데 큰몫을했다.

한국의 도박은 「노름」이라는 우리말이 암시하듯 유희(遊戲)의 차원이며 이차원을 벗어나기만하면 돈을벌기(따기)위한 수단외에 다른의미가 없어지기때문에 도박하면 불로소득의 악덕으로 죄악시해왔다는 풀이도있다.

이에반해 서양사회에서 갬블(노름)이라면 악덕이란 이미지가 희박한것은 돈을딴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돈을 건데 대한 모험의 성취에보다 큰 가치를 두기때문이라는것이다.

기원1세기 로마의 사학자 타키투스가 쓴「게르마니아」에 의하면『이미 게르만시대부터 유럽인들은 도박이 돈노름이 아닌 모험에 의한 승부라는 정신적노름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논리대로라면 유럽이 이동성 유목사회 상업사회로서의손실을 감안한 모험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모험을 거부하는 농경사회의 안정지향성사고때문에 노름을 악덕시해왔다는셈이된다.

"幸福 추구권·私生活 자유침해 우려"
規制완화가 세계적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놀이가아닌 노름이 성행했다는 기록은 전혀찾아볼수없다.

오히려 바둑이나 장기, 연날리기, 차전놀이, 심지어석전(石戰)등의 민속놀이가 성행했음을 잘알수 있다.

그보다는 50, 60년대 농어촌의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고리채의 원인이 됐던것이 도박이었던데서 「내기」라면 우선 악면으로 인식됐을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당시 농한기에 부업도없고 소득은 낮았던데서 근로의욕의 저하로 도박풍조가 온마을에 퍼져 가산을 날리고 이농하는 일이 흔했음은 잘 알려진일이다. 오죽하면 5·16혁명정부가 4대사회악의 하나로 도박철퇴령을 내렸겠는가.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박의 범위와 해석도 시대에 맞게 조정돼야한다.

최근에 어느나라나 도박의 금지나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는것도 이때문이다.

증권, 경마, 복권발행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박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각국의 공통된 추세다.

심지어 보험계약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인해 보험금액의 지급여부나 그액수가 정해지므로 사행계약에 속하며 이점에서 도박과 다를바없다는 법률학사전의 풀이도있다.

현재 급속도로 퍼져가고있는 전자오락에 대해서도 국민학생에서부터 전체국민에게 사행심만을 조장할뿐이라는 해악론에서 그필요성을 인정, 전자오락실의 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허가론이 대두되는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수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놀이는 삼가야하지만 가벼운 내기는오히려 삶의 윤활유가 될수있다. 도박이 오락으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넘지않고 사회적 폐퇴가 되지않기위해서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할것이다.

요즘 전국을 휩쓸고있는 소위 「고스톱」열풍도 퇴폐풍조인지, 범국민적 오락인지는 상식선에서 따져봐야 할일이다.

요는 판돈의 다과보다는 형태가 문제다.

단돈10원짜리 내기를 매일 몇시간씩 장기간 계속했다면 상습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례도 있다.

친구 서너명만 모였다하면 골방을 찾아들어가 화투짝을 조이며 중년여인들이 쑥탕이나 한증탕에서 벌거벗은채 고스톱에 열중한다면 과연 여가선용을위한 「일시오락」이라 할수있을지의문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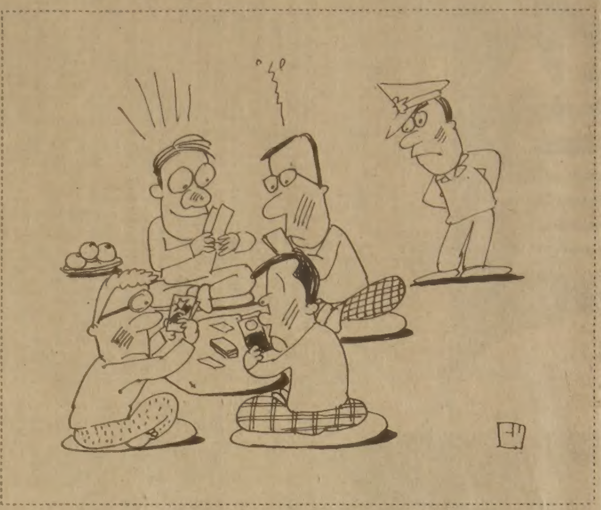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쌓이는 긴장, 갈등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가벼운 내기는 삶의 윤활유이자 활력소가 될수있다.

나아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나 오락으로서의내기는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수도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자기분수에 맞는 내기는 용인되어야한다.

賭의 뜻인 「걸다」는 것보다는 따고 잃는데 더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도박인것이다.

【崔鍾植기자】



빠찡꼬·마작간판 즐비…規制와 節制균형속에 오락으로 인식

도박속에 사는 日人들

일본의 번화가는물론 시골에 까지도 빠찡꼬나 마작의 간판이수없이 눈에띈다. 일본사람처럼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은 세계에서 들도없을것 같다.

넓은 의미에서 공인된 도박장으로는 빠찡꼬와 마작뿐만아니라 경마 자전거경기 보트·레이스등이 있다.

그러나 라스베이가스처럼 돈놓고 돈먹기식의 순수도박장은 하나도없고 아울러 엄격히 규제하고있다.

형법에 규정된 도박의개념은 두사람이서로 금전을걸고 당첨에의한, 또한승부에의해 이해득실을 정하는 것으로돼있다. 일본의 형법은 넓은의미에서 도박을네가지로분류, 각각 벌칙을상세히 규정하고있다.

승패에 의한 단순도박자는 1천엔이상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과하며 상습도박자는 3년이하의 체형을 가한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알선한자에 대해서도 각각 3개월이상 5년이하의징역에 처함으로써 일본사람들은 도박에 손을 대려하지 않는다.

일본사람들이 돈내기 도박을 하지않는 것은 법이 엄격한 이유도 있지만 준법정신과 「개미처럼 일해 벌처럼 저축」하는 일본인들의 성격 탓인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은 연간수입의 평균 20%를 저축하며, 82년통계에 따르면 1세대당 평균 5백91만엔 이상의 예금통장을 갖고있다. 이처럼 높은 저축률은 바로 도박으로 남비하지않는 것이 사회풍토임을 뜻한다. 그렇다고 일본인들이 인간본능인 도박심리를 버린것은 아니다. 한도를 넘지않는것 뿐이다.

마작이나 바둑, 장기의 경우도 샐러리맨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위해 귀가전 마작이나 바둑집에 들러 돈내기바둑을 두는수는 있으나, 기껏해야 하루저녁 5천~1만엔을 넘지않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눈감아주고있다. 큰돈을 걸지않는한, 또 상습으로 하지않는한 법으로 단속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일본에도 82년 오오사까를 중심으로 전자게임 도박장이 널리퍼져 사회문제가 된일이 있다. 전자게임의 발달에의해 포커를 컴퓨터와함께 할수있도록하는 전자도박기계가 발명되어 삽시간에 전국에 퍼졌다.

이 전자도박게임을 단속하려던 경찰이 도박장과 짜고 내부의 비행이 드러나 관할경찰서장이 자살한일까지 발생했다.

自民黨의 매파의원인 하마다(浜田幸一)의원이 라스베이가스에서 도박을하다 1백50만달러(약9억원)를날려 의원직을 사직했다.

그의 도박스캔들은 백만장자인 우익의 巨頭 오사노(小佐野賢治)국제흥업社主에대한 록히드공판에서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오사노는 다나까前수상의 둘도없는 친구로서 自民黨내의 극우단체 靑嵐會 소속의원인 하마다는 72년10월14일 12명의 친구들과 라스베이가스의 한호텔에 묵으면서 노름하다 돈을 날렸다. 이때 단발승부인 바카라에 50만달러를 날렸고 오사노는 하마다에게 노름빚을 갚으라고 73년 록히드사에서 받은 20만달러의 뇌물을 전네줬다는 것이다.

여하간 일본은 패가망신형의 도박은 철저히 단속하되 인간본능의 한계내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오락성의 도박에는 비교적 관대한 균형있는 정책을 펴고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예수와 인간고

길 ◇韓景職◇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수있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친히당하였다. 이사야 53장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였다. 그는 친히 인간고에 참여해서 모든 고난과 죄악 가운데서 전인류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십자가의 뜻이다.

리빙스턴이 편안한 자기나라를 버리고 암흑의 아프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자기의 몸을던지며 간것도 십자가의 정신에의해서다. 다미안이 문둥병자들만 사는 하와이의 한섬 몰로카이섬에 자원하여 가서 일생토록 문둥이와 같이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감염되어 죽은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정신에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것이라』(갈2:20)

張吉山 <1712>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2)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무기진사(戊己辰巳)에 어지러운 용이 할퀸(龍門)에서 일어난다. 세 전내(奠乃)에가 내응하여 나라를 멸하리라.

그 해가 정묘(丁卯)년이오, 무진(戊辰)년은 바로 돌아오는 명년이라 뜻을 잘 모르는 향도들도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환은 신서를 덮으면서 말하였다.

『명년에 국운이 크게 변할 것을 선인들은 이미 기록하여 남기고 있소이다. 미륵의 세상으로 개세(改世)되리란것을 이 신서로 보아 알 수가 있읍니다. 이제 때는 무르익었으니 손을 뻗쳐 따기만 하면 됩니다. 남부 현거도솔 당래교주 미륵존불…』

칠성암 큰재가 끝나고나서 여환은 계화와 더불어 인근 미륵도들의 지역법회를 방문하였다. 각지역 상좌들의 보고로는 차츰 향도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여환의 안찰무마로 병이나은 백성들사이에는 성인이 나왔다는 소문이 남자하였다. 친민(親民)에는 교(敎)가 방편이오 교통(交通)이는데에는 다시 의통(醫通)이 법방이 된다던 얘기가 맞았다.

시월에 접어들자 만산홍엽(萬山紅葉)이라 산천은 샛노랗게 누렇게 또는 갈색 혹은 다홍 자주등의 색깔로 물들었고, 구월산은 이름 그대로 가을 산이 되어서 골골이 옥수요 봉봉이 불붙듯하였다. 원향이는 여환 계화와 작별한 뒤에 일단 원정사를 떠나기로 하였다. 사당말 백련이며 옥여 스님이 말렸지만 원향은 자신의 수도를 위해서도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것같았다. 박수 오계손은 자기와 함께 신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원향은 단골섬조님을 몰두로 모시었으니 구월산 인근을 떠나기가 싫었다. 원향은 정신이 들고나서 처음으로 사설을 옛터를 찾아가 보았었다. 사방은 적막한데 갈대며 마당의 분간을 못하도록 타버린 집터에 타버린 서까래가 비바람에 씻기었으나 검은 숯의 형적은 그대로였다. 깨어진 장독 무너진 돌담, 타다남은 초가지붕 들이 잡초를 사이에 흉칙한 도깨비처럼 숨어있었다. 바람이 골짜기로 스쳐 지날적마다 예전과 다른 소리로 변하는듯 하였다.

『어머니, 준보야…』

불 가운데서 외치던 모친의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아 원향이는 흠칫, 사방을 둘러보고는 하였다. 마을 뒤편 둔덕에는 떠나던 생존자들이 시신수습하여 이루어 놓은 묘지들이 양지녘에 올망졸망 모여 있었다. 아직은 떼가 무르지 않아 벌건 흙이 마른채로 틈실 드러나 있었다. 이 어느 되미랄것도 없이 그 것들을 한데 싸잡아서 원향이는 중간쯤을 어림짐작하여 바라고 섰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삼세번 올렸다.

『고이 잠드소서』

돌아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골짜기 안쪽에는 불이 미치지 않았던지 성한집이 두어채 보였고, 원향이는 아예 사설물에서 신당을 차리고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면 이 터전서 떠돈은 원혼들이 자기의 비리를 받아 정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비원을 자신의 몸에 깃들도록 해줄수도 있으리란 것이었다. 원향이는 여환이 언제가는 찾아오마던 기약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다. 또 어느 십 수년이 흘러가게 될것인가. 앙무당의 내림굿 해주시던 정성어미며 그 여자가 내려준 신칼은, 바로 이 구월산에서 가장 큰 만신으로 공물 이루라는 망우호령 아니었던가. 원향은 앙무당의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두번째 9단 昇段

바둑소식

◇金 寅9段

전문기사 金寅8단(40)이 우리 바둑사상 두번째로 9단에 승단했다. 金씨는 지난6일 한국기원서 열린 제57회 갑조승단대회 1국에서 金東明6단에게 백을 들고 불계로 이겨 9단승단에 필요한 소정의 점수(45국 총3천45점, 평균67.7점)를 획득, 入神의 경지에 들어섰다.

金寅9단은 43년11월23일 전남康津태생으로 소년시절부터 뛰어난 棋才를 보인끝에 15세때인 58년 한국일보社주최 제1회 전국아마추어 바둑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그해 가을 초단으로 입단, 전문기사가 되었다. 그는 62년3월 바둑수업을 하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3단을 인정받고 63년11월 귀국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林海峯, 오오다께(大竹英雄)와함께 장래 기계를 주름잡을 큰 재목감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온뒤 두텁고 힘이있는 중후한 풍으로 각 기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66년 제10기 國手戰도전기에서 드디어 趙南哲國手(당시)의 9년아성을 무너뜨리고 國手位를 쟁취했다. 당시 매스컴들은 20대초반의 신예 金寅기사가 40대의 趙南哲왕국을 물리치고 세대교체를 이룩했다고 대서특필했다.

金國手는 여세를 몰아 66년 처음 제정된 王位戰서 우승하면서 「金寅시대」를 열었다. 이로부터 그는 國手戰6連覇, 王位戰통산 우승8회, 覇王戰6連覇, 72, 73년 最高位戰 2회우승, 74년 제1회 白南杯우승등 지금까지 총29회의 타이틀 획득기록을 세웠다.

그는 초단으로 입단한후 24년5개월, 8단이 된지 8년10개월만에 入神의 관문을 돌파했다. 현재 曺薰鉉전관왕에 밀려 無冠으로 있지만 國手·覇王·王位·棋王·國棋戰본선에서 활약,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바둑에만 몰두하다가 결혼까지 놓친 金9단은 더욱 공부해팬들에게 좋은바둑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기원은 가까운 시일안에 金寅9단의 승단 축하식을 가질 계획이다. 【衡】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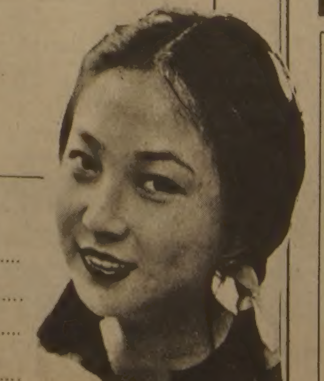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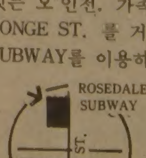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 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컬러畵報 立體편집
구독신청·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구독 신청서
지방구독자 $2.50+90¢(우송료)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홍
(자격증 소유한 요리사 구함.)

「프로」답지않은「프로野球」

투자없는 所得바라 童心에 상처주기도

자료不在의 巨額스카웃 失望안겨

스포츠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표로 국내스포츠에 본격 프로시대의 막을 연 프로야구가 창립2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프로야구에 참여하고있는 6개구단은 프로스포츠 기업으로서의 자립의지를 외면한채 아마추어·스포츠에서도 상상할수없는 정책적 특혜를 받으며 아마추어적인 경기승부에만 집착,「존재가치를 의심받고있다.

프로야구는 현재 아마추어단체와 마찬가지로 팀활동 홍보·임대사용중인 시설투자지원금을 기업손비로 처리,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있다. 국가대표급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병역이 면제되어 팀활동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다.

더우기 아마야구가 총입장수입의 20%를 전국각구장에서 일률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로 지불해야하는데 비해 프로구단들은 전액, 또는 일부 감면특혜를 받고있다. 운동장 사용료 감면은 프로야구에대한 특혜의 대표적인 예다.

大田운동장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OB베어스, 仁川의 三美슈퍼스타즈의 경우 전기,수도,마이크등에 대한 실사용료만 낼뿐 운동장사용료는지불하지 않고있다.

大邱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 三星 라이온즈는 특석·일반석의 구별없이 관중1인당 50원의 사용료만 운동장측에 낸다.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MBC 靑龍은 아마추어보다 7.5%낮은 총수입의 12.5%를 사용료로 내고 있다.

창설초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한 이러한 특혜속에 프로구단들은 아마추어적인 게임승부에 집착, 국외에서 활약하던 퇴물선수들을 억대에이르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스카우트,「국내화폐가치체계를 뒤흔들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들에 대한 계약금·연봉은 일반정액봉급자들로서는 상상키 어려운 거액이다.

우수선수의 확보는 프로스포츠의 상품을 고급화한다는데서 바람직한 일이기도하다. 그러나 현재 각구단이다투어가며스카우트해온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은퇴기에이른노장들로실제경기서도 부진,스카우트과정에서,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않았음을 보여주고있다.

일부 구단서는 전력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수의 스카우트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국민화합을 꾀한다는 스포츠산업에 값비싼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하는지는 고려해볼 일이다. 국내팬들의 사랑을 받고자란 유망선수들을 국내수준에 맞는 대우로스카우트, 실속있는프로야구 조직을 만드는것이 더바람직한 일일것이다.

프로야구단은 입장수입에대한 반대급부로 팬들에게 안락한 관전여건을 갖춰주지않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구단이 투자없는소득을 바란듯 구장관리에소홀함을 드러내고있다.

지난 2일 잠실개막경기서는 구단이 모집한어린이회원이 낙상, 전치8주의 중상을입는 안전사고를 냈다.

5일 잠실구장서는 3만수용의 잠실구장에 어린이 입장권을 3천장으로제한, 미처입장권을구입하지못한 어린이들을 홈팀MBC와 용역계약을맺은 범아실업 경비원이 현금 2만3천4백원을 받고 들여보내 입장권발매와 수입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구장관리 책임을가진 MBC측직원은 오히려 이비위를 적발해낸 한국야구위원회 직원을 힐난, 반공동반독립채산제의 현행입장수입관리에 구단상호간의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구단들은 전국적으로 약30만에 이르는 어린이팬들을 확보하고있다. 그러나 빅·카드일 경우 각구단은 어린이입장권의 발매를 기피, 당초 어린이회원모집의 취지를 그르치고있다.

또한 스탠드에 모여앉은 어린이팬들에게 상대팀을 비방하는 유치한 응원구호를 외치게해 교육적인 면에서도 큰문제를 낳고있는 실정이다. 【方錫峋기자】

記者의 눈 — 후나孃의 경우

미국에 정치적망명이 허용된 후나(胡娜)양(19)은 중공지도층인사들의 총애를 받는 귀염둥이였다.

특히 부수상 萬里와는 종종 테니스의 게임상대가되어 친하게 지냈다.

萬里부수상은 게임이 끝난후 짬짬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쉬운말로 강의해주면서 이재기발랄한 아가씨를 조국의 품에 붙들어두려했다고한다. 이것은 후나양 스스로 밝힌 얘기이다.

이런 신변얘기는 왜 중공지도자들이 후나양의 미국망명에 대해「과잉반응」을 보였는가하는데 대한 설명이 될수도 있겠다.

그러나 후나양의 망명은 미국무성 존·휴즈대변인의 표현대로「과잉반응」이라는 말로는 다답을수없는 두나라간의 관념적 차이가 있다.

미국은 세계각국으로부터의 이민과 망명으로 세워진 2백년이 약간넘은 이민국인 반면 중공은 4천년여의 역사를가진 그들의 말로는「中華」의 나라이다.

미국사회는 망명을 개인의 자유의사와 신념에 따른 선택으로보는데비해 중공의 나이많은세대들은 이것을 조국에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중공인들이 볼때 후나양망명은 개인적인 일로 그치지않는다.

지난79년 중공을 방문한 카터가 鄧小平에게『미국이민을 더 허용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인권외교를 주창하던 카터로서는 중공의 이민제한을 인권에대한 침해라고보고 한 물음이었다.

이에 대해 鄧小平은『그러면 1천만명을보내면 받아들일 수 있겠소』라는반문으로 응수했다. 鄧小平이 보았을때 카터의 이러한 제의는 우월감을 바탕에 깔고 우쭐대는 위선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당시는 카터의 인권외교도 미국내의 소수민족차별문제에는 무력하다는 비판을듣고있을때였다. 79년의 미·중공수교이후근대화운동을 추진하는鄧小平은1만여명의 엘리트들을미국에 장기체류형식으로 보냈다. 이중에는 鄧小平자신의 아들과 前외상 黃華의아들을포함,다수의 학생들이있다.

그러나 이중 10%에 해당하는 1천30명이 82년말현재 美이민국에 정치적망명신청서를 내놓고있다. 이들중 일부를 심사한결과 8명에게는 망명이 허용되었고 94명은 거부되었다.

망명의 동기는 표면상정치적이유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귀국후 조국에의報恩과 봉사보다는 편리한미국생활에 유혹을 느꼈기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중공지도자들 역시 개방정책에 따른 식자층의변절이라는후진국의공통된역사를경험하며분노하고있는것이다. 더구나후나양은자신들과가깝게지내며아낌을받던젊은이였다는점에서분노의폭이클수밖에없었던것같다. 【朴來富外信部기자】

外信안테나

中共黨서기 胡耀邦 5월東歐 방문예정

【北京AP=聯合】중공당 총서기 胡耀邦이 오는5월 유고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8일말했다.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중요한 조짐으로보이는 胡의 이번 동구권방문은 중공의 고위지도자로서는 수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것이며 지난81년6월 총서기에 취임한이래 첫 해외방문이된다.

蘇 64억弗武器輸出 81年 3세계國家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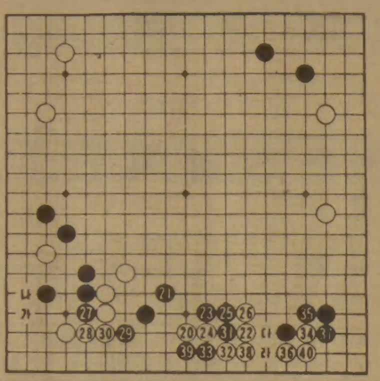
【브뤼셀聯合】제3세계국가에대한 소련의 81년도무기판매고는 10년전에비해 명목가치로 5배나 증가한 64억달러로서 무기수출은 소련의 주요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한전문가가 8일 밝혔다.

美일리노이대학의 로저·카네트교수는 이날 東西경제관계에관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세미나에서 소련의 무기수출급증현상을 분석하면서『무기판매수입이 소련의 무역적자를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는만큼 소련지도자들이 경제적인이유로 무기수출을 결정할 소지가높아가고있다』고 말했다.

제14기 名人戰

第14局 第2譜 20~40 (각5시간·덤5집반)

白(6段)徐能旭〈1勝2敗〉
黑(7段)盧永夏〈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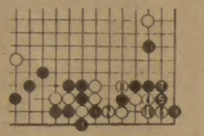


白20을 노타임으로 두어놓은 徐6단은 4분만에 떨어진 黑21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먼저 白「가」와 黑「나」를 교환해야 되었다고 뒤늦게 뉘우친 모양이다. 하지만 실상 문제가된 점은 白22였다.

첫째 黑21로 슬쩍비키는 바람에 白20으로 협공한 기세가 꺾인 격이고 그보다도 22와같은 평범한 벌림수는 오히려 黑23, 25의 중엄한 수단을 너무도 제격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

白은 갑자기 궁지에 몰렸다. 계속 白31로 깁수도 없어서 3분을 고심한끝에 白26으로 넓었지만 黑27, 29의 수순을 거쳐 31, 33으로 되고보니 20, 24 두점은 살려낼 도리가 없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22는 숫제「다」에 부딪쳐 변화를 피해봄만도 못했다.

첫번째 큰 변화



그러나 여기서 徐6단의 강수가 터졌다. 바로 白34 다음 白38 또는 白「라」에 흑구이음하는 선수를 배경삼고 36의 맥이 성립되는 것이다. 黑도 39는 절대. 이하白40까지는 일변이다.

수순중 黑37은 참고도처럼 黑1로 젖혀잡고 이하11까지 처리하는것도 일책이었으나 盧7단은 실전보다 어떨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한다. 【一凡】

땅끝에서오다 <28>

金成一 作 / 宋龍 畵

안개속에서 온 密書 ①

보잉747의 대한항공 비행기에 앉자마자 그는브리프케이스를 열고 이세원의 그 낡은 책을 꺼냈다.

(이것이 바로 이세원의 비밀이었던가…?)

준호의 그 집요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난공불락으로 앞서가던 고아 이세원의 그 신비한 비결은 바로 이책 한권뿐이었던가. 적어도 그의 가방 속에는 유명하는 경제학자의 베스트셀러란든가, 아니면 첨단서적이라든가, 적어도 이세원식 사고방식을 엿볼수 있는책 하나쯤은 들어있을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이 낡은 책한권 뿐이었다. 그것도 몇번씩이나 줄을 그어서 너덜거리는 것으로보아 어지간히 애독하고 숙독하고 암송한 것이 분명하였다.

준호는 갑자기 그책을 손에 든채로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준호가 지금껏 세상의수천권책을 정신없이 읽어대고 있을때 이세원은 겨우 이책한권을 읽고있었단 말인가. 바이블이라면 준호도 여러가지책에서 읽은대로 대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천지창조의 신화, 이스라엘사람들의역사와 그 메시아사상…그리고 세상 죄를 혼자 감당하고 죽었다는 예수라는 청년의 이야기. 대충 그런것들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세원은 그책에다가 책장이 너덜거리도록 줄을 그어가며 그것을 읽었던것일까. 거기에 미적분의 공식도, 통화정책의 원리나 엔트로피의 법칙도 없었을텐데 어째서 이세원은 오직이책한권만을 읽고 또 그것을남겨놓은채 사라져버렸던 것일까.

그는 다소 긴장하면서 낡은 가죽 뚜껑을 넘겼다. 제일 앞장에는 한자로「창세기(創世紀)」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는 이 처음 만져보는 책의 시작을 읽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創造)하시니라』

잘알고있는 이야기인데도 묘한 낯선 세계의 문을 들어서고 있는 느낌이었다.

기장의 아나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륙준비. 슬라이드·보드를 오토마틱에 고정시키고 전송부원 정위치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사가오고, 코피가 오고 바쁜 서비스가 끝나더니 면세품의 기내판매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참동안을 낡은책속에 팔려있던 준호는 팔꿈치를치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의 궁둥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생각을했다.

준호는 스튜어디스를 불러세우고는 조니·워커 위스키와 켄트담배를 샀다. 준호 자신을 위해서는 이미 일본의 루나 담배를 수트케이스에 충분히 사넣어 두었지만 언제나 풍성한 노후의 멋을 즐기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마련하는 소박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미 비행기는 서울 상공에 들어서고 있었다. 수많은 서울의 불빛들이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불빛들 속에 사랑이 싹트고 미움이 꽃피는 것이다. 증오가 폭발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1982년1월4일 이제 서울도 또 한 해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1988년의 세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낸 서울이 이제 새 포부를 안고 맹렬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 생동하는 불빛속에 이 세원은 혹시 없는 것일까. 금방 어디 구석에서 『놀랐지?』 하며 튀어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저 아름다운 여인 문 영실은 그의 남편이 실종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땅끝에서오다 <29>

金成一 作 / 宋龍 畵

안개속에서 온 密書 ②

엔진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좌석벨트 점검』

승무원들이 일제히 좌석사이를 돌며 좌석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좌석벨트를 매세요』

스튜어디스의 주의를 받으면서 그는 눈을 부비고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神)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비행기의 활주가 몹시 빨라지더니 어느새 기체는 공중에 떠오르고 있었다.

준호는 먹먹해오는 귓속을 손가락으로 후볐다. 전광판의 금연표시가 꺼졌다. 기장의 아나운스가 고도 3만7천피트임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천지창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흐음…)

처음읽은 책이어서 그런지 제법 재미가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 책의 내용보다는 그속에 숨겨진 이세원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에 더 흥미가 있었던것이다. 그는 루나 담배를 빼아물고 불을 붙였다.

한국인 스튜어디스가 타월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바쁜행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동경 서울간의탑승을 그들은 헬드클럽이라는 은어로 부르고 있었다. 두시간도 안되는 비행시간동안에 신문과 잡지를 서비스하고 타월배급, 음료수 배급, 식사, 코피…그리고 면세품의 기내판매까지 해야하는 빵빵이 근무이기때문이었다. 타월로 얼굴을 닦기가 무섭게 음료수가 지나가고 있었다. 준호는 잽싸게 손을늘려 하이네켄 맥주를집었다. 서둘지 않으면 생각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지나가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천지창조는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되니 이는 첫째날이니라』

『…저녁이되며 아침이되니 이는 둘째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되니 이는 세째날이니라』

준호는 필터에 맥주를 적셔 스며들게하고는 담배를 빨았다. 시원하고 나긋나긋한 연기가 가슴속에 젖어들고 있었다. 야마우찌·스미에에게서 배운 흡연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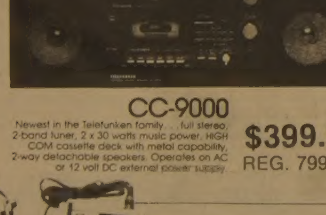
기장의 굵다란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TELEFUNKEN

SUPER SPECIAL SALE

NOW ONLY
$ 3499.00
Reg. $5,000 or less

Studio 1M Hi Fi
The ultimate in portable stereo sound ... 2 x 60 watts music power, 4-band tun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detachable 3-way speakers. Operates on AC, 12 volt car/marine battery, regular and rechargeable batteries.
$699.00
REG. 1295.00



CC-9000
Newest in the Telefunken family ... full stereo, 2-band tuner, 2 x 30 watts music pow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2-way detachable speakers. Operates on AC or 12 volt DC external power supply.
$399.00
REG. 799.00

CF-100
Portable stereo cassette player and FM radio in one compact unit! Pre-select any three FM stations and choose by pushbutton. Plays all tapes including metal. Supplied with carrying case, headphones, demo cassette and batteries.
$99.95
REG. 2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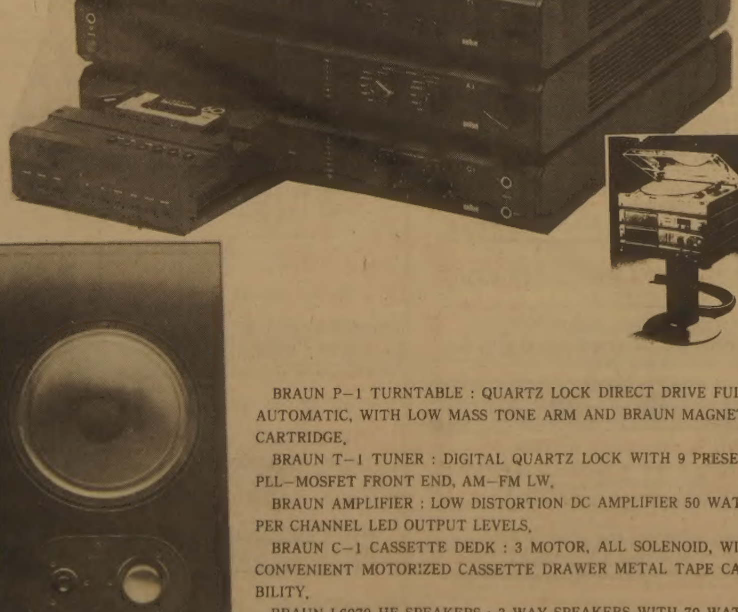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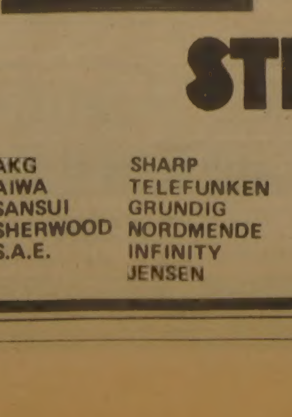
AKG / AIWA / SANSUI / SHERWOOD / S.A.E.
SHARP / TELEFUNKEN / GRUNDIG / NORDMENDE / INFINITY / JENSEN

N / W / S / E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BRAUN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N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MOSFET FRONT END, AM-FM 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0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D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 BILITY.

BRAUN L6070 HE SPEAKERS : 3 WAY SPEAKERS WITH 70 WATTS HANDLING CAPACITY.

STEREO 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KG / AIWA / SANSUI / SHERWOOD / S.A.E.
SHARP / TELEFUNKEN / GRUNDIG / NORDMENDE / INFINITY / JENSEN

N / W / S / E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여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디)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 (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스토어 헬퍼 구함.
유경험자원함. 남녀불문.
전화 : 691—3666. Mr. 리.

파트타임, 샐러드 만드실분 구함.
9:00a.m.~1:00p.m. 주6일 경험 필요없음.
전화 : 421—9144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여자분 원함.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5—0339

Video Movie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영어와 한국어 잘 하시는 분. (Warden & Sheppard 지역)
전화: (B)494—7830. (R)925—1331(밤)

2살 이상인 애기 봐드립니다.
정원이 넓어서 애기 놀기 좋음.
전화 : 745—0939 Mrs. 정

가게 맡아서 하실분.
주매상 현재 2천불. (더 올릴 수 있음) Rent $200
전화 : 691—4426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
오후6시—오후 10시까지(주7일간). 시간당 $4
원하시는 분은 삼복식품으로 직접내방 바람

◉ 사 원 모 집 ◉
무역사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여건 : 대학졸업자.
* 무역실무경험, 영어능통, 남·녀사원.
* Start 년봉 25,000불
Call : 677—4749. PENDRITH CO.

Dishwasher 구함.
오전 11:30~오후2:30. 월—금요일
전화: 421—6016. (오후 2시반 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리스 또는 매니지먼트. 주매상 $9,000
전화 : 251—3559(12:00~6:00pm)Mr. 송

풀타임 경험있는 캐쉬어 여자구함
전화 : 465—8167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Bakery—버라이어티 Plaza
Eglinton—HWY 427. $100,000다운. 완전장비갖춤.
9,000Sq. fit. 전화: 787—1626. 저녁781—3593

일본음식점 매매.(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바겐. 가격이 다시 내렸음. 좋은 장소. 좋은 리스. 46 Seats. 술 라이선스. Bar 카운터. 전화 : 221—1621. 826—7676 메니저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Food Store.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드라이크리닝 & Laundry 완전 도구 매매
전화 : 593—5454. 276—7245 Mr. Angelo

비데오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모든 종류 있음
가격: 대당 $1,700
전화 : 924—559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포함) 주매상 $6,000
전화 : 1—547—0841 Mr. 조

그로서리가게 매매. $15,000. 다운타운 지역.
적은 렌트. 긴 리스. 매상오를 가능성이 많음.
Well Realty Inc. 전화 : 596—8170 Mr. Tong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MEAT SHOW CASE(고기냉장)길이 12피트(ft)
537—1664 Mr. Foto. 972 Ossington Avr.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주매상 $7,000이상+건물
전화 : 921—4283(오후1시—3시사이)
456 Gerraed St. E.(at River)

보석·선물가게 매매
주인이 은퇴함(외국사람)
전화 : 742—7399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1)주택 2 Bedroom Yonge/Lawrence $91,900
(2)주택 4 Bedroom Yonge/Eglinton $189,000
(3)주택 4 Bedroom Keele/Finch $179,000
(4)주택 2 Bedroom Eglinton/Marlee $67,900
(5)Store+3 Bedroom Queen/Parliament $169,000
(6)Store+3 Bedroom Queen/Leslie $99,900
(7)주택 3 Bedroom Yonge/Finch $129,000
(8)Fish Chips Dufferin Mall $24,900
Canada Permanent Trus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베출러 Sublet
전망좋음. 즉시 입주 가능. 월$319
전화 : 533—8197. King & Dufferin

아파트 임대. Large 1 Bed Room.
수영장, 사우나있는 고급 아파트.
$410/Month. Mr. 리. 전화 : 836—6072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비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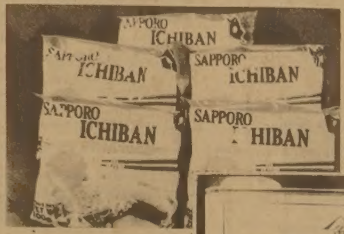
토론토의화제
최고
인기

DY 식품

염가봉사

D.Y상표를 한번 맛보신 분은
영원히 D.Y제품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50LB $16.95



굴비용 햇조기 $39.90 Box당(33Lb.)
$50상당 사시는 분께만(삿뽀로라면. 가도야참기름은 제외)

삿뽀로 라면 $7.95

가도야 참기름 $7.95

쌀

경기미 20Kg— $12.95	$12.95
Potan Rose(장미표) 20Kg—	$12.95
Matsu rose(장미표) 20Kg—	$12.95
소면국수 Box	$ 9.99

D.Y. 맛새우젓
D.Y. 참기름
D.Y. 당면
D.Y. 막국수
D.Y. 우동국수
D.Y. 고추가루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는
※D.Y를 확인하십시요.

새로 한국에서 수입한 비데오·테입이 준비됐읍니다.
염가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판매처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인식품	622—2643	15 WEST DEANE PK.DR.
서울식품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울식품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해밀톤	1—385—1485	128 BRUCEDALE AVE. E.